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 본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연구

노스쇼어 아름다운교회 양육교재(일상생활영성) 개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정요셉

드루 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7년 5월

Copyright © 2017 Joseph Ju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f John Wesley's Social Sanctification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A Curriculum “Spirituality in Daily Lives” Development for Discipleship Training

Joseph Jung

Northshore Arumdaun Church, North Vancouver

This thesis engages in John Wesley’s social sanctification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As the one, who is grown up based on the Methodist foundation, is an ordained elder of Korean Methodist Church, and is a student studying Christian worldview movement, I hope to make a connection between the Methodist understanding of social sanctification and the Christian worldview. Based on my experiences, deeply engaging in the Methodist tradition and the Christian worldview, I hope to find a contact point for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Methodist tradition and the Reformed theology by introducing the Christian worldview movement to the Methodist tradition and John Wesley’s social sanctification to the Reformed theology.

For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John Wesley’s social sanctification and Christian worldview, it is hard to deal with the whole wide range of studies of the Christian worldview within this thesis. In this thesis, to compare with Wesley’s social sanctification, I select three vital points of Christian worldview; the frame of Creation-Fall-Salvation, Abraham Kuyper’s sphere sovereignty, and the practical practices of Christian worldview movement.

Based on this comparative study, I will develop a disciplining material for North Shore Arumdaun Church where I am currently serving. The disciplining material, which

is entitled as 'The spirituality in Daily Life,' will be utilized to teach and educate the scriptural way of living in daily life based on both the Christian worldview and social sanctification.

국문초록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 본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연구:
노스쇼어 아름다운교회 양육교재(일상생활영성) 개발

정요셉

노스쇼어아름다운교회, 노스밴쿠버

본 논문은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를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연구하려 한다. 본인은 감리교에서 자라나 한국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는 목사로서, 또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두 가지 흐름을 연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아직 두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양쪽 진영을 모두 경험해 본 장점을 가지고 요한 웨슬리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를 소개하며 서로의 접촉점과 보완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 사회적 성화는 요한 웨슬리 신학의 작은 한 부분에 해당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은 그 범위가 이 논문에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넓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의 내용가운데 중요한 핵심가치 세 가지를 선별하여 사용하려 한다.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틀과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영역 주권론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적용 범위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실천적 부분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노스쇼어 아름다운교회에서 사용할 양육교재를 개발하려 한다. 교재의 이름은 '일상생활의 영성'으로 기

독교세계관과 사회적 성화를 접목하여 성경적 일상생활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곳에
활용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1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3
II.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에 대한 이해	4
사회적 성화의 신학적 기초	4
사회적 성화의 시대적 상황	6
사회적 성화의 원리	11
사회적 성화의 실제	13
사회적 성화의 목표	21
사회적 성화의 종합	21
III. 창조-타락-구속으로 살펴 본 사회적 성화	23
창조-타락-구속과 사회적 성화	23
창조와 사회적 성화	30
타락과 사회적 성화	34
구속과 사회적 성화	39
IV. 영역 주권론과 사회적 성화	42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	43
영역주권론적 사회참여	45
사회적 성화에 나타난 영역주권론	48
V. 기독교적 세계관 운동과 사회적 성화	57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흐름	57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평가	60
사회적 성화 운동의 흐름	65
사회적 성화 운동에 대한 평가	69
VI.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사회적 성화를 접목한 교재 개발	73
1주:부활과 일상생활	76
2주:성경속에 나타난 일상생활	79
3주:일 소명 은퇴 1	83
4주:일 소명 은퇴 2	87
5주:성 결혼 우정	92
6주:우상 돈 소비주의	96
7주:바쁨 안식 나이들	100
8주:일상을 위한 습관	106
참고문헌	111

제 I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존 스토틀트는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을 기술하면서 첫 장에서 사회 참여의 대가였던 요한 웨슬리를 소개한다. 18세기 영국이 프랑스처럼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공포를 겪지 않았던 요인이 요한 웨슬리가 펼친 사회 참여 운동의 영향이었다는 역사가들의 연구를 제시한다.¹

많은 사람들은 요한 웨슬리를 18세기 영국 사회의 부흥 운동을 일으킨 순회 전도자나 감리교를 시작한 신학자로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요한 웨슬리의 한쪽 부분만 이해한 부족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요한 웨슬리는 부흥운동가와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어두워가는 영국 사회를 바라보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회변혁과 구제와 섬김을 일을 감당했던 사회 운동가이며 실천적 목회자였다.

이러한 사회 참여와 실천적 영역에서 요한 웨슬리가 힘을 주어 강조했던 내용이 사회적 성화 사상이다. 요한 웨슬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과 선행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리 본인이 직접 이 일에 뛰어들어

¹ 존 스토틀트,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정옥배 역 (서울: IVP, 2010), 25.

삶으로 녹여 낸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사상은 충분한 연구 가치가 있는 주제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요한 웨슬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단의 신학자들과 사회 참여를 연구하는 사회 윤리학자들은 요한 웨슬리를 좋은 모델로 삼아 사회적 성화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을 주장하는 개혁주의 신학 진영에서는 너무 생소한 분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요한 웨슬리의 전통을 따르는 교단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웨슬리와 칼빈의 신학을 서로 비교하며 자신들의 신학이 더 정통하며 우월함을 강조하는 연구는 빈번했지만 두 신학의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의 차원에서의 연구는 부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한 웨슬리의 신학과 사상 중 사회적 성화와 존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주의의 기독교 세계관을 비교 분석해 본다면 결코 대립되는 이론과 운동이 아닌 같은 목적과 동일한 시선으로 하나님과 사회와 이웃을 바라보는 이론과 실천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본인은 감리교에서 자라나 한국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는 목사로서, 또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공부한 학생으로서² 두 가지 흐름을 연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아직 두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양쪽 진영을 모두 경험해 본 장점을 가지고 요한 웨슬리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를 소개하며 서로의 접촉점과 보완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노스쇼어 아름다운교회에서 사용할 양육교재를 개발하려 한다. 교재의 이름은 ‘일상생활의

² 본인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세계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였다.

영성' 으로 기독교세계관과 사회적 성화를 접목하여 성경적 일상생활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곳에 활용하려 한다.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와 기독교적 세계관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 사회적 성화는 요한 웨슬리 신학의 작은 한 부분에 해당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은 그 범위가 이 논문에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넓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의 내용가운데 중요한 핵심가치 세 가지를 선별하여 사용하려 한다.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틀과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영역 주권론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적용 범위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실천적 부분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앞으로 진행될 논문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만 사회적 성화에 대한 이해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2장에서 먼저 사회적 성화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그 후 앞에서 말한 기독교 세계관의 주요 핵심가치들을 활용하여 사회적 성화와의 비교와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3장에서는 창조 - 타락 - 구속으로 본 사회적 성화를, 4장에서는 영역 주권론과 사회적 성화를, 5장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사회적 성화를 살펴볼 것이다. 6장에서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집필한 일상생활의 영성이라는 교재를 소개할 것이며, 마지막 결론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사회적 성화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므로 본 논문을 마무리 할 것이다.

제 II 장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에 대한 이해

사회적 성화의 신학적 기초

요한 웨슬리로부터 시작된 감리교 운동은 루터나 칼빈처럼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를 문제삼아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요한 웨슬리의 과제는 어떻게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를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기독교의 능력은 실천에 있음을 확신하며 인간 영혼의 구원과 함께 사회의 구원을 추구하였다.

요한 웨슬리가 추구한 신학적 방법은 경험적이며 실천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¹ 진정한 신학이란 개인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신학을 위한 신학은 의미 없는 것이기에 신학이 기독교인의 삶으로 이어질 때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에게 신학은 삶의 이해라기보다는 삶의 변화를 위한 도구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였다.

김홍기는 요한 웨슬리를 개신교의 마지막 종교 개혁가이자 개신교 최대의 신학자라고 평가한다. 요한 웨슬리는 루터 이후 시작된 개신교의 구원론을 가장 성숙한 차원에서 완성시킨 신학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² 루터에게서 시작된 개신교 사상의 핵심인 신앙의인화(Justification by faith)가

¹ 랜디 매덕스, *웨슬리 신학 다시 보기*, 이후정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43.

²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9.

신앙제일주의(Solafideim)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랑의 에너지로 채워지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혹은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완전한 성화의 신학으로 발전과 성숙을 이루어낸 신학자이다.³ 이와 같이 요한 웨슬리는 의인화뿐 아니라 성화도 구원론의 중심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루터에게서 시작된 의인화의 신학이 쾰링글리(Zwingli), 뮌처(Muntzer), 부처(Bucer), 칼빈(Calvin)을 거치는 동안 점차 성화사상이 보충되어 웨슬리에 이르러 성화교리가 꽃을 피웠으므로 요한 웨슬리가 개신교 신학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평가한다.⁴

요한 웨슬리가 체계를 세운 구원의 질서는 선행적 은혜, 회개, 칭의, 거듭남,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 영화로 구분한다. 요한 웨슬리 구원론의 핵심이 성화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이다. 먼저 선행적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의 결과로 비록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자유의지, 이성, 정감, 자연적 양심 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이것이 빛으로 작용하여 하나님에게 응답하게 될 때 비로소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⁵ 요한 웨슬리 신학은 이 점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노력, 동참, 협력의 행위로 보았기에 신인협력론(Synergism)이라고 말한다.

요한 웨슬리는 나아가 회개를 통해 본래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순서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았다.⁶ 인간의 죄와 타락은 오직 참된 회개를 통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개의 결과 인간은 칭의에 이르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변화를

³ Ibid., 10.

⁴ Ibid., 86.

⁵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98.

⁶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서울: 성서연구소, 1996), 125.

가능하게 한다.⁷ 인간의 변화는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면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중생)이다. 칭의와 거듭남은 동시적이고 순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심은 그 다음에 따르는 실제적인 변화인 성화와 완전에 치중되어 있다. 요한 웨슬리는 칭의의 은혜를 제 1의 복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제 2의 복이라고 말했다.⁸ 또한 회개는 종교의 현관(Porch)이요, 믿음은 종교의 문(Door)이라면, 성화는 종교 자체(religion itself)라고 표현하였다.⁹ 그리고 이 성화는 개인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임을 강조하였다.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신앙의 증거는 사회적이어야 하고, 사회적 성화 아닌 성화는 말할 수 없으며, 사회적 종교 아닌 기독교는 모른다고 말했다.¹⁰ 기독교를 단순히 기도하고 명상하는 종교로만 생각한다면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보았던 것이다. 요한 웨슬리는 루터가 지푸라기 말씀이라고 평가했던 야고보서 말씀을 옹호하며 행위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여겼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우리도 역사해야 한다는 신인협력설(Synergism)의 관점에서 사회적 성화를 보았다.

사회적 성화의 시대적 상황

요한 웨슬리가 활동했던 18세를 가리켜 ‘3R의 시대’ 라고 부른다. 첫째는 이성의 시대(The age of Reason)였고, 둘째는 산업혁명의 시대(The age of

⁷ Ibid., 126.

⁸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102.

⁹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58.

¹⁰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103.

Industrial Revolution) 였으며, 셋째는 종교적 부흥의 시대(The age of Religious Revival)였다.¹¹

이성의 시대

이성의 시대란 영국에서는 합리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신론이 나타났고, 독일에서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일어났으며, 프랑스에서는 자연주의와 낭만주의가 일어났던 시대를 말한다. 18세기 동안 발흥한 유럽 지역 이데올로기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풍조였다.

18세기 영국의 이신론은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주로 인정은 하지만 세상일에 관여하거나 계시하는 인격적인 존재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의 보편성을 주장하며 이성으로 종교를 재해석하고 성경의 특별 계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말하길 시계가 제조한 사람의 간섭이 없이도 저절로 잘 돌아가듯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도 이성이 발달한 인간에 의해 잘 돌아간다고 믿는다.¹²

18세기 독일의 합리주의는 성서의 모든 부분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함으로 성서 속에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신화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도 구속자로서의 예수가 아닌 역사적 예수만을 인정하였다. 기독교 안에 있는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인 것은 배척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원리만을 수용하려 태도를 말한다.¹³

18세기 프랑스의 자연주의 역시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신현상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원리가 자연 곧 물질에

¹¹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18.

¹² 김홍기, *존 웨슬리의 성화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8), 32.

¹³ Ibid., 35.

있다고 보는 철학적 체계였다. 자연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제도와 교리의 종교를 부인하며 다양한 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하여 자연종교로의 구현을 시도하였다.¹⁴

이러한 이성의 시대를 살았던 요한 웨슬리도 시대의 영향을 받아 인간 이성의 역할과 자유의지를 강조하였지만 요한 웨슬리가 강조한 이성의 개념과 18세기 사상의 중심점이었던 이성과의 다르다. 요한 웨슬리는 성령의 은총과 계시가 인간 이성 활동보다 먼저 주도권을 갖는다고 하였다.¹⁵ 김홍기는 요한 웨슬리의 이성에 대한 이해는 중세를 지배한 아벨라르(Aberlard)적 이성 이해에 가깝지 않고, 오히려 안셀름(Anselm)적 이성 이해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아벨라르는 이성적 사변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고, 이성으로 출발하여 믿음에 이르고, 믿기 위하여 이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안셀름은 믿음의 결단에 의하여 이해에 이른다고, 믿음으로 출발하여 이해에 이른다고, 알기 위하여 믿는다고 주장하였다.¹⁶ 요한 웨슬리는 믿음을 전제로 한 이성, 성령의 인도 아래 복음이 사회에 봉사하는 이성, 성경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점검해 주는 이성이 올바른 이성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기에 감리교 신학의 4변형(Quadrilateral)에 성서, 전통, 경험과 함께 이성을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켰다.

산업혁명의 시대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 웨슬리의 시대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¹⁴ Ibid., 37.

¹⁵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19.

¹⁶ Ibid., 20.

산업혁명의 시대였다.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1760년경 제임스 하그리브스(James Hargreaves)가 실 짜는 기계를 발명함으로써 섬유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¹⁷ 또한 아브라함 다알비(Abraham Darby)가 1708년경 철 제련에 석탄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여 개발함으로써 석탄 사용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¹⁸ 이로 인하여 수 많은 광부노동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들 중에는 나이 어린 아동들도 포함되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1775년 제임스 와트(James Watt)의 증기엔진이 발명으로 시장에 나오므로 증기의 힘이 철공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¹⁹ 이것이 산업혁명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철공업과 섬유공업이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자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고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이 문제시 되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11-14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당하였는데 아동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22세였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과 산업 노동 현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좋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고 높은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성경말씀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묵살하였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과 주거환경과 대우를 제공하지 않았다.

화려한 산업혁명의 이면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인식한 요한 웨슬리는 사회적 성화의 차원에서 이들을 돕고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 노동조합과 농업노조를 만들도록 도왔으며 소외된 지역에 감리교 설교자들을

¹⁷ Ibid., 20.

¹⁸ Ibid., 20.

¹⁹ Ibid., 21.

파송하였다. 그리고 모금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자금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영국의 성공회 교회는 상류층에만 관심을 갖는 상류층을 위한 교회로 존재하였다면,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회는 사회적 성화의 깃발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달래 주고 위로해 주며 용기를 주는 교회였으며 농부, 광부, 근로자, 여성, 아동 등 하류층을 위해 섬기는 교회로 세워져 나갔다.²⁰

종교부흥의 시대

18세기 유럽 대륙에는 경건주의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특히 독일에서 시작된 경건주의의 필립 스페너(Philp Jakob Spener)와 진젠도르프(Nikolas Ludwig Zinzendorf)의 모라비안 주의 운동은 요한 웨슬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²¹ 경건주의는 17세기 독일에서 만연된 냉랭하고 형식적인 루터 교회의 정통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운동이다. 경건을 추구한 신앙인들은 초대 교회의 뜨거운 경건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으로 결속된 운동이다. 이 운동의 핵심적인 강조는 개인의 회심, 거룩한 생활, 친밀한 교제, 전도의 사회책임 등이었다.²²

특히, 스페너의 경건운동은 무엇보다도 구원이 거룩한 삶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회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흡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과 구빈원을 설립하여 가난한 자와 실업자들에게 일을 제공하였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았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교회의 새롭고

²⁰ Ibid., 24.

²¹ Ibid., 25.

²² 이형기, *세계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316.

열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²³

경건주의는 개인의 인격 변화를 통한 세계 변화를 강조했기에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18,19세기를 이어 심지어 20세기까지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 배출되었던 것이다.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운동도 이러한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기에 영국의 소외된 지역의 변화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요한 웨슬리는 사회적 행동과 참여가 성육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회 개혁을 외쳤기에 독일의 경건주의를 뛰어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성화의 원리

요한 웨슬리는 그의 설교 ‘산상설교 IV’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가 실천해야 할 기독교적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²⁴ 기독교는 단순히 개인적인 은둔형의 종교가 아니라 사회적 종교이며, 단지 개인적 갱신과 변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온 세계와 우주까지 변화시키고 갱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에 도달하는 원대한 비전이라 생각하였다. 요한 웨슬리는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이기에 이 종교를 고독한 것으로 만들 때에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²⁵ 교회가 사회를 떠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유지되거나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요한 웨슬리는 참된 종교가 사회적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

²³ Ibid., 305.

²⁴ 박창훈, “존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에 대한 재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0 (2011년), 126.

²⁵ Ibid., 128.

사랑의 계명을 선행을 통해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성화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다.

요한 웨슬리가 말한 사랑은 루터가 말한 사랑과 다른 점이 있다. 루터에게 사랑은 신앙의 나무에서 저절로 맺히는 열매로 이해했지만, 요한 웨슬리에게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선행을 사랑이라고 보았다. 루터는 사랑을 주어지는 은혜로 강조하였지만 요한 웨슬리는 사랑을 주어질 뿐 아니라 참여하는 은혜라고 보았던 것이다.²⁶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토대와 척도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으로 모든 선한 행위의 필수적인 전제를 이룬다.²⁷ 믿음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며 믿음은 사랑을 인식하는 기관이 됨으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졌다면 이에 대한 반사로 찾아오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비이기적인 선함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부정하는 예정론이나 계몽주의의 낙관적인 인간성 이해와 도덕주의에 의한 이신론, 무신론, 인본주의 등에 반대하여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를 고수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류 사랑이 도출된다고 하였다.²⁸

이와 같이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과되는 이웃사랑으로 사회적 성화의 원리를 삼은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대상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며 어떤 한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대상으로

²⁶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110.

²⁷ 박창훈, “존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에 대한 재고찰,” 128.

²⁸ *Ibid.*, 129.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충만해질 때 실현 가능한 것이고 계속되는 사랑의 선행이 이어질 때 점진적인 완전성화를 추구하게 된다.

요한 웨슬리는 사랑의 실천은 선물인 동시에 인간의 과제와 책임이며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다.²⁹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율법은 복음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 오히려 율법은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사랑의 법이 된다. 본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다는 예수님의 말처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계명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의 법칙으로 이웃 사랑을 삼는다면 윤리적 선행을 통하여 사랑을 완성하고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사회적 성화의 실제

웨슬리 브레디(J. Wesley Bready)와 엘리 할레비(Elie Halevy)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18세기로부터 19세기초까지 요한 웨슬리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성화 운동을 기초로 한 성결운동과 박애운동이 프랑스 혁명 같은 폭력적 피의 혁명의 위기에서 영국을 구원했다고 주장했다.³⁰ 브레디는 ‘웨슬리 이전과 이후의 영국’이라는 책을 통하여 요한 웨슬리로 시작된 새로운 사회적 양심이 타락과

²⁹ 김홍기, *존 웨슬리의 성화론*, 48.

³⁰ 존 스토틀,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25.

부도덕에 빠진 영국사회 구원해 내었다고 말했다.³¹ 또한, 할레비는 “같은 시대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자주 일어났던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왜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가?”³²라는 의문을 갖고 영국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 대답을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웨슬리안 감리교의 사회적 성화 운동에서 찾았던 것이다. 사회적 성화 운동은 당시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 계급과 중산층에게 청교도적 경건주의와 실천을 통한 비폭력적 개혁의 수단을 가르쳐 주어서 민중의 폭력적 혁명을 피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요한 웨슬리는 선행은 구원의 외적 증거라고 여기며 성화의 영역 가운데 사회적 성화의 영역을 강조하였다. 신자의 성화는 성령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발전해야 한다. 칭의의 필수적인 결과로 성화가 나타나야함을 강조하였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무신론자이며 구원받은 현실적인 증거가 없는 자라고 하였다.³³ 그러기에 요한 웨슬리를 출발점으로 한 사회적 성화 운동은 영국의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며 확장되었는데 구체적인 영역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구제활동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운동의 영역은 주로 영국 사회의 노동자 계급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박애운동과 자선사업을 통한 구제활동으로 실천되었다. 이미 옥스퍼드의 신성클럽(Holy Club) 모임부터 사회적 실천과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³¹ Ibid., 26.

³²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서울: 도서출판진흥, 2000), 316.

³³ Ibid., 318.

시작하였다. 이 시대는 근대 유럽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므로 서서히 계층 간의 대립이 발생하던 시기였다. 요한 웨슬리의 신성클럽은 노동자 계층의 비참한 모습에 눈을 돌렸고 빈부의 심각한 격차에 의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변두리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초기 감리교회의 집회소들은 대부분 신앙 훈련을 위한 모임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친교와 도움과 정보를 얻는 센터가 되었고, 가난한 가정의 자녀 들을 위한 학교가 되었고, 약국과 병원이 되었으며, 가난한 상인들의 신용협동조합이 되어 주었다.³⁴

본인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 병자, 장애인, 어린이들, 과부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운동의 형태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닮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요한 웨슬리는 이런 단순한 자선으로만 만족하지 않았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1746년에는 신용조합기금을 만들어 실제로 영세 사업자들을 돕기도 했으며 실업자 고용계획을 세워서 목화 손질, 방적, 뜨개질 등 단순한 일을 제공하여 돕기도 하였다.³⁵ 영국의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 때부터 정기적으로 구제헌금을 모았으며 모여진 헌금을 담당하는 ‘구제 기금 청지기’와 ‘병자 심방인’을 신도회마다 임명하여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들은 일주일에 1회 병원의 환자를 방문하거나 병원과 협력하여 자원봉사자들을 보내는 일을 담당하였다.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였다. 산업혁명으로

³⁴ Ibid., 322.

³⁵ Ibid., 325.

인하여 사람의 삶은 질은 향상이 되었고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는 강대국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산업 발달과 물질의 풍요 이면에는 비극적인 사회 현상으로 어둠의 지대가 공존하였는데 산업지대의 노동자들과 광산의 광부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실업자들과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시대였다. 이때 이러한 노동자 계층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대부분이 감리교회로부터 도움과 실질적인 생활의 도움을 받았으며 감리교회는 이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업으로 여겼다.

웨슬리는 대여 금고를 설립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어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하였으며, 런던에 ‘구빈원’ (The Poor House)을 세워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았고, ‘과부의 집’ 을 세워 전쟁 미망인들을 돌보았으며 ‘노인들을 위한 감리교회의 집’ (Methodist House for the Aged)과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그네 동무회’ (The Strangers Friendly Society)를 설립하여 사람들을 도왔다.³⁶

교육과 의료 활동

요한 웨슬리는 구제활동만이 아니라 교육 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다시 부유한 자들은 가정교사를 두고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켰지만 가난한 자들은 어떠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학교를 세워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무상으로 가르쳤다. 제일 먼저 1748년 브리스톨에 광부들을 위한 킹스우드 학교를 세웠고, 그 후 런던과 뉴캐슬과 다른

³⁶ 김영선, “존 웨슬리의 사회복지 목회,” *한국개혁신학* 19 (2006년), 88.

지역에도 학교를 세웠다. 이러한 학교들을 통하여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르침으로 이교들의 영향에서 보호하며 기독교의 진리로 인도하였다. 모든 학교에서 빈곤한 자들에게는 무상으로 가르쳤고 의복과 음식도 함께 제공하였다.³⁷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감리교회가 세운 주간학교는 160여곳으로 증가하였고, 1847년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교사양성을 위한 대학을 세웠고, 1900년대 초반에는 간호사 학교와 산업선교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해 나갔다.³⁸

요한 웨슬리는 건강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당시 만연하던 질병의 원인이 불결과 무지라는 것을 알고 가난한 병자들을 돕기 위해 무료 진료소를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으나 빈곤으로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자 의약품을 나누어 주었고 중한 증세의 환자들은 전문 의사에게 보내어 의료조치를 받도록 도와주었다.³⁹ 요한 웨슬리는 1741년부터 병자들을 방문하여 돌볼 감리교인들을 선발하여 런던 23개 지역으로 나누어 일주일에 3번씩 각각 지역의 병자들을 방문치료 하도록 하였다. 랄프 월너(Ralph Waller)는 1740년에서 1820년 사이에 런던의 5세 이하의 아이들 사망률이 74.5%에서 31.8%로 줄어들었는데 요한 웨슬리의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였다.⁴⁰ 요한 웨슬리의 의료활동은 종교적 원칙과 선교적 관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³⁷ Ibid., 96.

³⁸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345.

³⁹ 김영선, “존 웨슬리의 사회복지 목회,” 89.

⁴⁰ Ralph Waller, *John Wesley-A Personal Portrait*, 강병훈 역, *존 웨슬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2004), 200.

노예제도 폐지활동

18세기 영국의 여러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노예제도였다. 노예매매는 16세기 초 포르투갈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16세기 중엽 영국은 흑인노예 매매에 참여하여 얼마 후 미국으로 매매되는 노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왕실의 권한과 의회 법에 의해 노예매매는 국가적 이윤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⁴¹ 노예매매로 막대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기에 영국 정부는 노예산업을 보호하며 확장시켰고 영국 국교회마저도 노예제도를 묵인하고 있었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웨슬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지적이다. 흑인들도 백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므로 그들의 인격과 자유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죄악행위이고 비인간화 시키는 부정행위라고 말했다.⁴²

요한 웨슬리가 임종하기 사흘 전에 노예제도 폐지법안을 통과시키려 투쟁에 동참했던 젊은 국회의원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에게 편지를 보냈다. 요한 웨슬리는 편지를 통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위해 그를 일으키셨다고 확신시키면서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고 격려했다. 마침내 영국 의회를 설득하여 1807년 영국의 노예무역금지법이 통과되었고 1833년에는 노예 해방법령이 선포되어 노예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⁴³

요한 웨슬리의 노예제도 폐지운동은 영국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유와 정의와 평등에 관한 사상과 실천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으며 흑인들에게

⁴¹ Manfred Marquardt, *Praxis und Prinzipien der Sozialethik John Wesleys*, 조경철 역, *존 웨슬리의 사회윤리: 그 실천과 원리들* (대전: 보문출판사, 1992), 68.

⁴²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121.

⁴³ 존 스토틀,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27.

인간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교도소 활동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방문하여 전도하고 돌보는 일은 웨슬리 가문이 대대로 해온 일이었다. 요한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의 회심을 체험하기 전부터 매주 1회씩 교도소를 방문하였고 옥스퍼드 대학 시절 때도 신성클럽(Holy Club)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도소 활동을 펼쳐나갔다. 요한 웨슬리는 재소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방문하여 설교와 상담과 일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다. 또한 억울한 재판을 받는 재소자를 위해 변호사를 중재하고, 직업을 알선했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하였다.⁴⁴

당시 영국의 교도소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교도관들은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에 여러 가지 자인한 방법으로 재소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였다. 많은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집행되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대하여 요한 웨슬리는 재소자들을 목회적으로 돌볼 뿐 아니라, 교도소의 개혁을 위해 감옥의 생활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항거하기도 하였다. 결백한 죄수들의 석방을 위한 노력과 가난한 채무자들의 석방을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모아진 현금으로 의복, 음식, 매트리스 등을 사서 조달하였다.⁴⁵

나중에 존 하워드(John Howard)가 영국의 교도소 개혁을 주창하며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 때 요한 웨슬리의 교도소 활동이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 박차를

⁴⁴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130-131.

⁴⁵ 마르쿠바르트, *존 웨슬리의 사회윤리*, 135.

가하도록 하였다.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자연법에 근거한 사랑을 가지고 나눔을 통해 나그네에게 거처할 곳을 제공해 주며, 억울한 자를 풀어주며,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방문하는 희년 운동에 근거하여 펼친 활동이라 할 수 있다.⁴⁶

여성인권 활동

요한 웨슬리가 활동할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너무도 당연시 되던 사회구조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요한 웨슬리가 여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였던 수잔나를 보며 여성들을 지도자로 봉사하도록 하였다.⁴⁷

영국 국교회 내에서 여성이 역할은 명확하였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여 남성이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아들과 남편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교회나 사회가 정한 틀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요한 웨슬리는 남녀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⁴⁸ 그래서 여성도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는 여성지도자와 여성설교자를 세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에서 사용할 39개 종교강령을 편집하면서 ‘그리스도인 남자’ (Christian men)란 말을 모두 ‘그리스도인’ (Christian)으로 바꾸기도 하였으니, 불평등했던 여성들의 인권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⁴⁹

⁴⁶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105-106.

⁴⁷ Ibid., 84.

⁴⁸ 김영선, “존 웨슬리의 사회복지 목회,” 93.

⁴⁹ Ibid., 94.

사회적 성화의 목표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의 목표는 복음적 선포와 목회적 활동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복음이 개개인을 대상으로 회개로 부르시고 칭의와 중생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메시지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교회의 사명이 나타나야 한다. 개인의 변화와 갱신인 성화가 우선이며 필연적 전제이기 하지만 요한 웨슬리는 기독교가 사회적 종교로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믿었고 이것이 사회적 성화의 목표라고 분명히 하였다.⁵¹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은 죄로부터 치유를 받고, 도덕적 변화와 생활의 전반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성화는 반드시 윤리적인 힘을 동반하여 인격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사회적인 변혁운동으로 역동화 되어야 한다.⁵²

이제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웃사랑과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인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전체의 행복과 평화를 증진시키며 악과 부도덕을 치유하고 극복하여 현재 세상에서의 구원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회적 성화의 종합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빈곤문제, 실업문제, 사회적 불평등 체계 등 개혁되어야 할

⁵⁰ 존 B. 캡, *은총과 책임*, 심광섭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7), 35.

⁵¹ Ibid., 42.

⁵² 이후정, *성화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32.

과제가 가득했던 시대였다. 이러한 때에 요한 웨슬리는 사회적 성화 운동을 통하여 의식개혁과 제도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믿음의 목표와 구원의 완성이므로 생각하였기에 기독교의 실천적 본질은 사회적 종교가 되어야 하고 성화의 완성도 사회적 성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의 대상이며 평등, 자유, 행복을 누려야 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갱신인 성화는 먼저 개인의 변화를 통해 시작되며 세상 속에서도 확대를 통한 사회적인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그 핵심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본편적인 사랑에 입각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성취이었다. 이러한 요한 웨슬리의 확신은 노동과 인권, 정의와 자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실천되며 활발하게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를 단지 믿음에 국한시키지 않고 선한 행위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며 실천적 행위를 강조하고 고양한 것은 요한 웨슬리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요한 웨슬리를 영국사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킨 부흥사로만 이해하여 왔으나 요한 웨슬리의 신앙운동은 내면적 성화를 통한 부흥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요한 웨슬리는 사회적 성화라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혁시킨 사회적 성화 운동가이며 실천가였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국은 물론이고 타 국가와 대륙에서도 방대한 사회적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제 III 장

창조-타락-구속으로 살피 본 사회적 성화

세계관이란 한 개인의 ‘인식과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틀’¹, ‘삶에 대한 관점’²,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면 일관성 있고 통일된 삶을 살 수 있고, 생동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바른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에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⁴

이러한 세계관 앞에 기독교적이란 용어를 붙인다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기초로 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 말할 수 있다. 마치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색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관점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인식과 판단의 틀이 되는 성경이 우리의 삶에 모든 부분을 뛰어넘는 권위를 갖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부분이란 우리의 삶이 맞닿아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가정 등 삶의 전반을 의미한다.

¹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1999), 30.

² 알버트 윌터스,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역 (서울: IVP, 2007), 24.

³ Ibid., 25.

⁴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40-42.

하지만 삶의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 성경은 많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 성경을 압축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틀이 ‘창조 - 타락 - 구속’ 이라는 틀이다. 그리고 창조 - 타락 - 구속의 틀을 알버트 윌터스는 개혁주의 세계관이라고 부른다.⁵ 그 이유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뿌리로 하며 신칼빈주의라고 불리는 화란계통의 개혁주의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창조 - 타락 - 구속의 구조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창조(Creation)와 인간의 타락(Fall),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Redemption)사역을 말한다. 양승훈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형성된(Form)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Deform)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에 의해 개혁(Reform)되어야 한다”⁶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적 근거로 하여 창조-타락-구속의 구조를 만들어 냈기에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고, 칼빈의 사상과 개혁주의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 웨슬리를 시작으로 한 신학적 흐름을 알미니안니즘 신학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알미니안니즘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의 반대편에 위치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 하지만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두 신학은 서로 합쳐 질 수 없는 기차길처럼 서로가 추구하는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평행선을 달려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자의 사상과 구원론이 더 탁월하고 정통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많은 논문과 관련

⁵ 알버트 윌터스, *창조 타락 구속*, 37.

⁶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46.

자료들이 발행된 것이 현실이다. 아름다운 조화와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신학이 더 성경적이며 상대방의 신학은 오류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알미니안니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과 교회에는 소개되지 않아 생소한 용어로 남아 있으며, 알미니안니즘 신학을 가진 교단과 교회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가치를 보기 보다는 칼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인은 이러한 논쟁과 선입견은 불필요한 소모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두 종류의 신학이 형성되던 16-18세기에는 분명한 신학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사상을 옹호하며 다른 신학적 흐름을 경계하는 모습이 필요하였지만, 현대 21세기에는 이러한 논쟁과 옹호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이단을 대적하듯이 대립하는 양측의 입장을 보며 이제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니즘 신학 사이의 통합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합과 조화의 차원으로 기독교적 세계관과 사회적 성화를 다루어보려 한다. 먼저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도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보려 한다. 또한, 창조-타락-구속의 틀을 사용하여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창조-타락-구속과 사회적 성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를 외치며 중세 카톨릭의 타락에 항거했던 칼빈과 그 정신을 계승한 칼빈주의자들의 숨결 속에는 성경의 중요성이

깊게 배어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칼빈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기독교 신학의 유일한 원리요 원천”⁷이라고 제시하였다.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경을 쓰셨더라도 그것은 지금의 성경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⁸라고 말하며 성경의 축자영감설과 무오성을 주장하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과정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시되 인간적 오류가 스며들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만 내려야 한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과 아브라함 카이퍼가 강조한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의 원리이다. 모든 것을 고려하되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만 모든 문제의 최종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여야만 오직 성경으로의 원리를 오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전체를 바라보는 틀이 바로 창조 - 타락 - 구속의 틀인 것이다. 또한, 이 틀로 바라보는 시도가 교회의 활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의 더 넓은 범위인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의 영역에서 실천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이처럼, 창조 - 타락 - 구속의 틀은 지극히 성경적인 원리를 담고 있으며, 성경적 내용을 기초로 포괄적인 삶의 체계를 다루려는 지향점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⁷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서울: 킹덤박스, 2010), 315.

⁸ *Ibid.*, 345.

본인은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도 창조 - 타락 - 구속의 틀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경적 기초를 중심으로 한 실천적 주장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요한 웨슬리를 출발점으로 한 감리교에 대한 오해 가운데 성경적 근거가 약하며 실천적 행위만 강조하는 교단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해가 생겨나게 된 원인을 본인은 잘못된 요한 웨슬리 신학의 형성이라고 본다.

요한 웨슬리를 연구한 후대의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며 큰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 받는 사람은 알버트 아우틀러(Albert Outler)이다. 아우틀러는 요한 웨슬리의 사상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요한 웨슬리의 진정한 뜻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 아우틀러는 요한 웨슬리 신학이 품고 있는 4요소를 성서, 전통, 체험, 이성이라고 정리하며 '웨슬리의 사변형(The Wesleyan Quadrilateral)'⁹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이후 웨슬리의 사변형은 감리교 신학의 4대 원리가 되었고 신학적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웨슬리의 사변형은 사각형의 꼭지점에 성서, 전통, 체험, 이성이 위치하며 네 가지 기준에 종교적 권위와 판단의 잣대를 부여 한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구분으로 인하여 요한 웨슬리와 감리교는 성서의 권위를 나머지 세 요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이 부분의 잘못된 왜곡을 바로 잡으면, 요한 웨슬리가 성서와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 상호 견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요한 웨슬리의 신념이었고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요한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진수는 성서에 계시되어 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었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활기를 띠며, 이성

⁹ 알버트 C. 아우틀러, *웨슬리 영성안에 복음주의와 신학*, 전병희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68.

¹⁰ Ibid., 78.

확증되었다 “¹¹고 하였다. 성서, 전통, 이성, 경험의 사중규범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채 상호 견제와 보완의 역할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주는 요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웨슬리는 각각의 규범에 1/4씩의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니다.

김동환은 이 부분에 있어 요한웨슬리 사중규범은 사각형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꼴 모양으로 그리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한다.¹² 즉 삼각꼴의 가장 밑바닥에는 성서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놓여야 하는 것이고, 성서의 기초 위에 전통과 경험과 이성이 유기적으로 변을 세우게 될 때, 성서를 통해 검증된 전통, 성서를 통해 확인된 경험, 성서를 통해 확증된 이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성서의 권위를 강조하였던 요한웨슬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요한 웨슬리는 “저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이 되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또한 “나의 근거는 성서이다. 그래, 나는 성서 고집쟁이이다. 나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면에서 성서를 따른다” 고 하였다. 원래 이 표현은 중세의 대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나치게 한 쪽에만 치우치고 편협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주의할 것을 말한 표현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 요한 웨슬리는 자신은 차라리 한 책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스스로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한 것은 성서만 읽는다는 뜻이 아니다. 요한 웨슬리를 상징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순회전도자로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늘 책을 읽는 다독가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까지 지낸 요한 웨슬리가 이런 다짐을 한 것은

¹¹ Ibid., 79.

¹²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서울: KMC, 2014), 120.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제임스 조이(James K. Joy)는 요한 웨슬리를 “천 권의 책의 사람인 동시에 한 책의 사람” 이라고 불렀다.¹³

칼빈과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직 성경으로’ 를 선언하며 다른 어떤 제도와 예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처럼 요한 웨슬리도 한 책의 사람이 되어 성경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발견하려 하였던 것이다.

감리교를 영어로 표현할 때 메도디스트(Methodist)라고 표현한다.

메도디스트라는 용어의 시작은 1729년부터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 형제가 ‘Holy Club(신성회)’ 운동을 시작하면서 주어진 이름이었다. 이들이 정기적으로 경건모임을 가지면서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성결운동에 집착하자 여러 가지 멸시와 조롱 섞인 별명들이 붙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용어가 규칙쟁이라는 뜻의 메도디스트이다. 그리고 메도디스트와 더불어 이들을 불렀던 명칭 중에는 ‘Bible Moth’ 와 ‘Bible Bigot’ 라는 호칭도 있었다.¹⁴ 이 별명들을 번역해 본다면, ‘Bible Moth’ 는 ‘성경 좀벌레’ 라는 뜻이 되고, ‘Bible Bigot’ 는 ‘성경 옹고집쟁이’ 라는 뜻으로 풀어 볼 수 있다. 이 두 호칭은 요한 웨슬리와 초기 영국의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단어이다. 이들은 삶에 필요한 원리와 결정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기 위하여 옷을 갹아먹는 좀벌레 처럼 성경을 파헤쳤으며, 성경 속에서 찾아낸 원리와 적용점 들을 삶의 자리로 가져와 그대로 실천하고 노력하였기에 성경

¹³ Ibid., 141.

¹⁴ Ibid., 62.

옹고집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요한 웨슬리는 목회자와 신학자로서 결코 성경의 권위와 중요성을 축소시켜 전통, 경험, 이성과 동일한 한 부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성경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됨을 강조하며 그 안에서 삶의 원리를 발견하려 하였다. 이러한 관점과 노력은 칼빈주의의 노력과 동일한 노력이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신칼빈주의가 성경 속에서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을 찾아내 체계화 과정을 거친 후 삶의 모든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기독교적 세계관운동을 전개했던 것처럼, 요한 웨슬리도 성경을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사회적 성화운동을 이루어 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초한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을 사용하여 사회적 성화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창조와 사회적 성화

앞에서 창조-타락-구속의 구조는 성경을 기초로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 기초가 되는 성경의 초두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음을 말하고 있다.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하였는가에 대해 말하는 만물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 소개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관심밖에 있는 영역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창조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창조기사를 이야기 할 때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행위라는 뜻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창조의 산물인 우주가 돌아가는 창조질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⁵ 두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⁶ 하나님은 창조행위와 창조사역의 최고점에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창조섭리와 섭리사역의 동역자로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는 문화명령을 내리셨다. 문화명령의 내용을 포함하는 성경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5절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 2:15)” 라는 말씀을 통하여 질서정연하게 만든 천지만물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관리하도록 임명하셨다는 내용이 문화명령이다.

양승훈 교수는 창조주 하나님과 문화명령의 범위 안에 있는 피조물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하기를, 첫째, 창조주와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고, 둘째,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이고, 셋째, 모든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고, 넷째, 창조의 의미에는

¹⁵ 윌터스, *창조 타락 구속*, 41.

¹⁶ *Ibid.*, 42.

피조세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이 있다는 사실이며, 다섯째, 창조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곧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는 사실이다.¹⁷

그러므로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은 첫째, 창조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 둘째, 문화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위에서 정리한 창조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의 조화로움을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에 적용시켜 보면 앞에서 사회적 성화의 역사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18세기 영국은 이성의 시대로 이신론(理神論, Deism)이 급속하게 전파되던 시대였다. 이신론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직접적인 모태가 된 이원론으로 18세기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널리 퍼져나갔다.¹⁸

이신론자들은 창조주는 시계 제조자로서 태초에 시계를 만들어 움직이게 한 뒤 더 이상 시계를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 시계는 더 이상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시계를 창조하셨다는 점에서는 기독교적이지만, 창조된 뒤에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시계를 이분하는 세속적 이원론과 유사하다.¹⁹ 이신론은 나중에 유럽전역을 통하여 낭만주의와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으로 발전하여 모든 것을

¹⁷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63-71.

¹⁸ Ibid., 55.

¹⁹ Ibid. 58.

자연으로 환원시킴으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왜곡시켜 버렸다.²⁰

알버트 윌터스는 창조의 이중적 의미를 언급한 후에, 만약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각기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 발휘하셨던 그 전능하신 능력 매일 세계의 역사속에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이신론의 위험한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²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요한 웨슬리의 시대는 이신론의 바다에 빠져가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요한 웨슬리는 이신론의 원리가 되는 이성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강조하였다. 요한 웨슬리는 주장한 이성은 믿음을 전제로 한 이성과 성령의 인도 아래 복음과 사회에 봉사하는 이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성경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점검해 주는 이성을 말한 것이다.²² 앞에서 말한대로 웨슬리 사변형의 원리가운데 성서와 동등한 위치로서의 이성이 아니라 성서의 바탕위에 세워지는 이성을 갖게 될 때 이신론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되어 섭리사역에 동참하여 문화명령을 이루어내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인 문화명령과 사회적 성화를 살펴본다면 이것은 창조의 의미 가운데 섭리사역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명령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을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사실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출산을

²⁰ Ibid. 61.

²¹ 알버트 윌터스, *창조 타락 구속*, 42.

²² 송홍국, *웨슬리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0.

장려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세계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노력하고 가꾸어가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다. 요한 웨슬리는 계속해서 타락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영국사회를 바라보며 빛과 소금을 사명을 받은 영국의 감리교인들이 사회적 성화를 통한 청지기로서 사회참여에 앞장 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한 웨슬리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홀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자유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의지를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²³ 요한 웨슬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분명하신 뜻과 목적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문화명령을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로 정의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정의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락한 사회에 뛰어들어 사회적 성화운동을 통하여 진정한 문화명령을 이루어 나가려 하였기에 요한 웨슬리는 문화명령의 실천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타락과 사회적 성화

타락과 관련된 내용은 구조(structure)와 방향(direction)이라는 용어를

²³ 요한 웨슬리, *새로운 탄생*, 이계준 역, (서울: KMC, 2009), 181.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²⁴ 앞에서 언급한 창조의 부분에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와 창조 섭리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을 구조라고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 안에서 갖고 있는 창조질서 곧 구조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와 질서 안에서 한편으로는 타락으로 인해 창조의 왜곡된 변질의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방향 가운데 피조세계는 왜곡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방향으로 돌아서 그 길을 감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타락의 잘못된 방향은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타락한 인간을 중심에 놓고 살펴보았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 둘째는, 타인을 향한 방향이 왜곡된 것이고, 셋째는, 피조세계에 대한 방향이 뒤틀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방향으로 진행된 타락의 결과는 원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간과 더불어 총체적으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 요한 웨슬리가 사회적 성화를 강조할 시대에는 타락의 세 가지 방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으며 요한 웨슬리는 이런 타락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볼 만한 중요한 부분이다.

첫째, 타락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향한 방향의 왜곡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다.²⁵ 로마서 1장

²⁴ 알버트 윌터스, *창조 타락 구속*, 102.

²⁵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80.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고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요한 웨슬리 시대의 우상숭배는 나무나 돌을 숭배하는 자연숭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을 이성의 시대라고 정의한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 영국에서는 이신론으로, 독일에서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로, 프랑스에서는 자연주의와 낭만주의로 일어나게 되었다.²⁶ 이신론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다루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둘째, 타락의 방향은 타인을 향한 방향이다.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타락 이후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많은 관계의 훼손을 야기하게 되었다.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죄악의 본성이 나타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짓밟고 착취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여주게 된다. 로마서 3장 12-18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왜곡됨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나타나게 된 수 많은 죄의 결과들이 18세기 영국에서 여러 모양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정치적 타락, 사회적 불공평, 경제적 양극화 등 타락한 현실을 설명할 수

²⁶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19.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인간을 향한 타락의 내용 중 최악이었던 노예제도의 현상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영국이 노예매매에 개입한 것은 1500년경 포르투갈인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16세기 중엽부터였는데, 영국인들에게 흑인 노예매매 사업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었던 유티레히트 조약(The Treaty of Utrecht)에 속하는 1713년의 아시엔토(Asiento) 특허를 획득하자 영국은 이 노예무역 사업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1680년과 1688년 사이에만도 영국의 아프리카 군단과 무허가 상인들에 의해 수송된 흑인 노예는 200,000명이 넘었으며 1783년과 1793년 사이에 리버풀에서만 출발한 배에 의해서 미국으로 수송된 노예가 약 300,000명 정도였다.²⁷

이 사업으로 영국은 엄청난 부를 얻었다. 그리하여 이 사업의 보호와 발전이 정치적 활동의 목표가 될 정도로 국가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 노예선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괴와 유인, 사기와 계락을 통한 인신매매가 횡행했으며, 런던에서는 이러한 악질적인 앞잡이들이 조를 이루어 건장한 젊은이들을 유인해 함정의 뒷에 걸리게 하여 자물쇠가 잠긴 집이나 다른 은밀한 구류소로 납치했다가 팔아 넘겼다.²⁸

노예문제는 최악의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인간을 향한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노예제도에 대하여 요한 웨슬리는 분명한 반대를 했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요한 웨슬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지적이다. 흑인들도 백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므로 그들의 인격과 자유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죄악행위이고 비인간화 시키는

²⁷ 마르쿠바르트, *존 웨슬리의 사회윤리*, 110.

²⁸ Ibid., 106.

부정행위라고 말했다.²⁹

요한 웨슬리가 입증하기 사흘 전 노예제도 폐지법안을 통과시키려 투쟁에 동참했던 젊은 국회의원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에게 편지를 보냈다. 요한 웨슬리는 편지를 통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위해 그를 일으키셨다고 확신시키면서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고 격려했다. 마침내 영국 의회를 설득하여 1807년 영국의 노예무역금지법이 통과되었고 1833년에는 노예 해방법력이 선포되어 노예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³⁰

요한 웨슬리의 노예제도 폐지운동은 영국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유와 정의와 평등에 관한 사상과 실천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으며 흑인들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셋째, 타락의 방향으로 피조세계를 향한 방향이다. 타락의 범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여타 피조세계와의 관계로 확산되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았으며 인간의 무분별한 착취와 훼손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중에서 환경오염은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인간이 자신의 끝없는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과도하게 착취하여 생긴 결과이다. 인간의 욕망과 대량소비, 대량생산이 어우러져 피조세계는 점점 죽어가게 되었다.³¹

요한 웨슬리는 창조세계의 타락과 파괴의 원인이 인간의 죄성 임을 간파하여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에서 더 나아가 환경의 청지기 의식을 주창하였다. 후기

²⁹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121.

³⁰ 존 스토틀,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27.

³¹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88.

요한 웨슬리에게서 나타나는 우주적 새 창조(new creation)의 종말론적 비전은 그로 하여금 창조된 질서와 자연의 파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환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 대한 긍휼과 배려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실재인 정의와 자비와 진리의 실현을 도모하였다.³²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회복과 갱신에 이끌리어 마찬가지로 회복과 치유와 갱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간은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한다.³³ 생태학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자기훈련과 자기절제 및 희생에 대한 비전은 요한 웨슬리에게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웨슬리의 성화는 개인에서 시작되어 사회와 공동체로 더 나아가서 자연과 환경, 우주에까지 이르는 것이 된다.

구속과 사회적 성화

구속이란 폭넓은 범위로 영향을 미쳤던 타락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모든 창조세계의 영역에 퍼져가는 과정이다.

구속에 대하여 알버트 월터스는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³⁴ 회복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것을 침부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창조세계의 선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³⁵ 하나님의 나라란 창조 세계의 어떤 영역에 국한되기보다 창조 세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³² 이후정, *성화의 길*, 122.

³³ Ibid., 123.

³⁴ 알버트 월터스, *창조 타락 구속*, 115.

³⁵ Ibid., 115.

표현할 수 있다.³⁶

양승훈 교수는 구속의 개념을 개인적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통합의 차원으로 설명한다. “구속의 시제와 범위에 대해 좀더 폭 넓은 이해를 통해 우리는 균형 잡힌 구속관을 가질 수 있다. 구속의 문제가 개인 구원에만 집중될 때 신앙은 자칫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다. 자기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태도는 성경의 기본 정신과 배치된다. 신앙이 개인주의화되면 보편적인 기독교 윤리가 설 땅이 없어지며 결국은 복음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와 구원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말하는 구속의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는 운동이었다. 영국 사회의 타락한 현실(하나님을 향한 타락의 방향, 타인을 향한 타락의 방향, 피조세계를 향한 타락의 방향)을 바라보며 이 모든 부분에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사회적 성화를 주장하였고, 개인의 구원에서만 국한한 협소한 구속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통합하여 사회적 구원을 외친 사회적 성화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회복과 하나님 나라로서의 구속에는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에도 동일한 사랑이 원리로 작용을 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고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의 모습을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결합의 요소이다.³⁷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써 가능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³⁶ Ibid., 117.

³⁷ 이후정, *성화의 길*, 111.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행위로서 사회적 차원의 활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를 향한 성육신적 요소를 가지고 세상과 사회로부터의 분리와 단절의 모습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성육신적 참여가 요구된다.³⁸

³⁸ Ibid., 122.

제 IV 장

영역 주권론과 사회적 성화

마이클 호튼은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였다. 이 세상은 영지주의적인 이원론과 같이 선과 악의 영적전쟁의 구도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이 세상의 창조세계는 무조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¹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은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 수정되고 보완되어 영역주권론 사상이 나오게 되었다. 영역주권론은 자기가 받는 소명의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하고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발전시킨 것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관통하는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영역주권론이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와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 영역주권론과 사회적성화의 목표가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¹ 마이클 호튼,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88.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 (Sphere Sovereignty)

영역주권론의 원리자는 칼빈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종교개혁가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절대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권자이시며 통치자가 되신다²라는 사상이다. 나중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영역 주권론은 존 칼빈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카이퍼는 칼빈의 사상을 보다 폭 넓게 적용하고 구체화시켰다 할 수 있다.

1880년 10월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론에 대한 중요한 연설과 함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개교하였다. 이 연설의 핵심적인 주제는 피조물의 모든 국면들 위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의 모든 다양한 영역들 속에 각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주권을 위임하셨다는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 교회, 학교, 가정 등과 같은 우리 삶의 모든 사회적 영역들은 서로 침해할 수 없는 그것 자체의 고유한 신분과 주권을 가진다. 이를 영역주권이라고 한다.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회 내의 각각의 영역 속에 제 각기의 주권을 부여하셨으며 각각의 영역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각자의 주권적 법 질서에 의하여 유지되도록 하였다. 국가만 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교회, 과학, 문화, 예술 등도 자체의 영역에 대하여 고유의 영역주권을 갖고 있다. 정부의 합법적인 직무는 모든 영역들이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조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여러 영역 속에 있는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²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34.

되며 오히려 그 영역들이 고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카이퍼는 교육의 영역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³

또한, 영역주권 사상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 간의 다양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개인적 주권과 나란히 영역의 주권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칼빈주의적 의미에서 우리는 가족과 사업과 과학과 예술 등이 국가와 별개로 존재하며 국가의 우월성으로부터 자신의 생활 법칙을 도출하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높은 권위에 복종하는 모두 사회적 영역이라고 이해한다. (중략)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권위를 개별적 사회 영역에서의 주권이라고 부른다.”⁴ 대학은 학문적 지배권을 발휘하고, 예술은 예술의 힘을 소유하며, 길드는 기술적 지배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 각각의 영역이나 자치 단체는 자신의 고유한 활동 영역 안에서 배타적인 독립적 판단과 권위적 행동에 대한 권세를 의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허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가하셨기 때문이다.⁵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 영역주권론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헤르만 도예베르트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만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였다는 사실이 영역주권론의 근거라고 말한다. 모든 사회의 영역들은 어느 정도 배타적이고 예외적인 성격들을 인지한다. 배타성이 영역의 주권을 보장한다. 그는 영역주권론은 사회의 영역들의 다양성으로부터 영역들 간의 예리한 경계선 설정의 근거를 발견하며 또한 그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모든

³ M.R. 랑홀레이, *복음이나 혁명이나*, 이동영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4), 52-53.

⁴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112.

⁵ *Ibid.*, 117.

영역들은 그 영역에 고유한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영역을 다른 영역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⁶

영역주권론을 정리해 보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한 부분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을 회복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세계를 거룩과 세속으로 이원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종교적 은둔주의나 도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열정을 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교회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학교와 직장과 학문과 과학과 문화와 예술과 같은 세상 전 영역의 최전선에서 빛과 소금처럼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영역 주권론을 이루는 삶이 된다.

영역주권론적 사회참여

아브라함 카이퍼가 활동했던 19세기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은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각국은 혁명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었고, 당시 시대는 계몽주의와 낙관주의 사상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특히,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반기독교적인 혁명이 암중처럼 번져나가 기독교 신앙을 견고히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었다.⁷ 아브라함

⁶ 강영안,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5), 77.

⁷ 아브라함 카이퍼,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서문장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2), 31-32.

카이퍼는 프랑스 혁명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⁸ 당시 화란의 정치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박탈하고 대신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는 세속화된 자유주의자들이 인본주의에 근거한 여러 가지 법률제정과 정책을 펼쳐 나갔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카이퍼의 스승인 흐룬 반 프린스터라는 역사가의 예리한 관찰로 시대의 위험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19세기 화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16세기의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의 사상, 즉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흐룬 반 프린스터의 생각에 동의하였고 반 프린스터의 정당인 ‘반혁명당’을 물려 받았다. 이 정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를 보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정당의 목표는 정권창출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곧 정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전하는 것이었다.⁹ 아브라함 카이퍼는 반혁명당 활동을 통하여 화란의 정치계에 영역주권론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속해 있던 반혁명당의 지지기반은 주로 하층민이었다. 카이퍼가 작은 사람들에 관심을 가진 것은 성경에 가난한 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계몽사상에 기초한 자유방임주의 경제의 희생물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그는 약자의 편에 섰고 또한 그들의 자력으로 갱생하도록 하기 위해 힘을 썼다.¹⁰

그는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여 노동은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⁸ Ibid., 92.

⁹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122-123.

¹⁰ 김현수, “아브라함 카이퍼 그 정치활동과 신학사상 II,” *복음과 상황* (1994): 87.

노동자는 휴식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에도 임금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기본 임무는 정의의 시행이며 정부가 노동의 문제에 개입하기 보다는 조직된 노동자의 집단을 인정하고 보호하여 고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다른 사회영역에 의해 침해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¹¹

아브라함 카이퍼는 당시 국가를 전복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했다.¹²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적 노동 운동이나 무정부주의적 운동은 계몽주의적 자유주의의 논리적 귀결일 뿐 아니라 강력한 거짓 메시아사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노동조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1903년 수상재임 시 발생했던 전국적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처하였다. 그는 그 배후에 소수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음을 보고 그들과 노동자를 차단하기 위해 반철도 파업법을 제정하였다.¹³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집권 당시 금주법을 제정하였는데 그는 산업혁명 이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시에 빈민가가 생겼다고 말했다.¹⁴ 하층민들은 가난과 부패 속에서 탄식하며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 편에서는 여러분들의 손으로 생산한 열매를 가지고 보란 듯이 사치스런 연회를 즐기고 있다고 말하였다.¹⁵

¹¹ 아브라함 카이퍼, *기독교와 사회문제*,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122.

¹² Ibid., 125.

¹³ 김현수, “아브라함 카이퍼 그 정치 활동과 신학사상(II),” 87.

¹⁴ Ibid., 87.

¹⁵ 아브라함 카이퍼, *기독교와 사회문제*, 130.

이와 더불어 당시 유럽의 퇴폐적인 사회현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¹⁶

암스테르담과 같은 대도시에는 많은 환락가들이 생겨나고 노름, 폭력, 도둑질, 음주가 유행했고 알콜 중독과 성적 타락이 도를 넘은 상태였다. 특히 화란은 다른 무엇보다 음주에 있어서 다른 어떤 유럽국가들 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¹⁷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를 구원하고자 금주법을 제정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주권론에 입각하여 펼친 사회참여 운동을 정리해 보면 그는 정치적인 접근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혁명당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 넓은 범위로 영역주권론을 펼칠 수 있었고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늘 관심의 눈길은 소외되고 고통속에 있는 하층민들에게 있었으며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적 성화에 나타난 영역주권론

앞에서 살펴본 영역주권론의 핵심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주장된 것이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영역주권론과 사회적 성화 추구하였던 범위와 대상과 목표가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다른 시대와 국가라는 차이점과 두 사상이 펼쳐졌던 방법론에 있어서의 다른점은 있었지만 영역주권론과 사회적 성화는 같은 성격의 운동이었음을 밝혀보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성화의 개념이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운동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¹⁶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148.

¹⁷ 김현수, “아브라함 카이퍼 그 정치 활동과 신학사상(II),” 87.

요한 웨슬리의 신학적 주제 중 가장 핵심은 성화 사상이다. 전통적인 신학의 범주 안에서 성화는 구원론을 완성시키는 요소로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해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요한 웨슬리의 신학 주제인 성화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고려되었음을 지적하며 요한 웨슬리의 성화신학은 사회적 영역이 강하게 있음을 밝히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요한 웨슬리의 사상은 사회적인 개혁과 변화를 강조하는 실천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현재 한국 기독교 안에서 요한 웨슬리의 전통을 따르는 교단과 신학교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요한웨슬리의 성화사상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입장과 진보적이며 사회참여적인 입장이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교회, 교단, 신학자, 목회자 상호간에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자의 입장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무기력해 보이고, 후자의 입장은 낭만적인 공허한 구호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다.¹⁸

이러한 두 진영의 대립과 신학적 견해는 요한 웨슬리가 주장한 사회적 성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였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설명해 보면, 요한 웨슬리가 사회적 성화를 주장할 당시 어떤 의미를 담고 주장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부족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김동완 교수는 사회적 성화에서 사회(Social)라는 용어와 개념은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18세기 영국은 개인과 사회라는 구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것이다. 그 당시 영어사전에서도 사회라는 단어는 공동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에 사회적 성화라는

¹⁸ 박창훈, “존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에 대한 재고찰,” 122.

용어보다는 공동의 성화라는 용어가 요한 웨슬리가 주장하려 했던 내용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¹⁹

성화에 대한 개념이 개인과 사회라는 이중적 구조로 구분되어진 계기는 요한 웨슬리를 연구하던 신학자들이 요한 웨슬리의 목회적 방법론과 사상을 신학적 체계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체계화 시키려는 노력이 잘못된 구분을 만들어 낸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개념에서 본다면, 사회적 성화는 개인적 성화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포괄하는 폭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적 성화에 대한 질문 가운데 요한 웨슬리가 말한 사회적 성화가 개인을 통한 사회적 성화인가, 사회 자체를 성화시키자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해소되게 된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영역주권론의 모든 영역이라는 범위와 요한 웨슬리가 말했던 사회적 성화에서 사회라는 개념의 범위는 모두가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였음을 알 수 있고, 두 사상 모두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받은 청지기인 개인에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타락한 부분을 다시 구속하고 완성해 가는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틀을 반영하고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사상은 모두가 바라보는 궁극적으로 대상이 동일하였다. 18세기 영국이나 19세기 화란이나 모두가 격동의 시기를 보내며 사상적으로는 이성애 의해, 사회적으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혁명으로 인해 혼란과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있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질서가 무너진 곳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타락에 대한 결과로 수 많은

¹⁹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271.

²⁰ *Ibid.*, 282.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중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하층민들과 노동자 계급들의 고통이 깊어가고 있었다. 당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적 문제와 노동자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프랑스 혁명과 같은 피를 부르는 사태가 발생하였지만, 영국과 화란은 요한 웨슬리와 아브라함 카이퍼를 통해 폭력과 싸움을 통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올바른 기독교의 사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려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영국의 감리교회와 화란의 개혁주의교회가 일어나 사회적 성화와 영역주권론을 가지고 소외 받고 고통가운데 있는 하층민과 노동자들을 품었다. 이들은 사회적 성화와 영역 주권론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일차적인 대상이었을 뿐 사회적 성화와 영역주권론은 소외층을 넘어서 사회전반에 걸친 활동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갔다.

하지만, 모든 사회와 모든 영역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론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치영역과 교육영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위하여 정당을 통하여 사회를 개혁하려 하였고, 대학을 설립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려 하였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방법론을 평가해보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개혁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윗부분이란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당을 창출함과 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교육활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아랫부분에 있는 소외층과 노동자들의 삶을 향하여 내려가는 방법론을 선택했던 것이다.

사회적 성화를 영역주권론과 비교해 보면 방법론에 있어서는 반대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역주권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론을 추구하였다면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의 출발점은 아래 부분이었다. 요한

웨슬리의 관심은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탄광에서 노동하는 광부, 교도소에 갇힌 재소자, 짐승처럼 대접받는 노예 등, 인간의 타락과 권력의 부패와 정치적 횡포로 인하여 고통 받는 자들이 요한 웨슬리의 일차적인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들을 돕기 위하여 여러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것들이 나중에 영국감리교라는 새로운 교단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의 방법론은 영역주권론과 반대 방향에서 시작하여 진행되었으며,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치와 교육을 통한 활동을 펼쳐갔다면, 요한 웨슬리는 교회공동체를 통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앞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당활동에 대하여는 살펴보았기에, 이번에는 요한 웨슬리의 교회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성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던 부분들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요한 웨슬리는 목회현장에 작은 소그룹 들을 만들어 놓았다. 일차적으로 이 소그룹들의 목적은 개인의 영성과 신앙의 단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각 그룹마다의 목적과 모임의 성격이 달랐다. 요한 웨슬리는 이 소그룹 들을 은총의 수단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인의 구원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돕기 위하여 만든 조직이었다. 대표적인 소그룹을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점점 범위를 좁혀가는 원이 중복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좋다.²¹

가장 큰 그룹은 옥외집회로 요한 웨슬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역들을 순회하며 옥외집회를 열었다. 옥외집회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초대하였고 이 때 회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었다. 요한 웨슬리는 옥외집회를

²¹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62.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설교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어 큰 소리를 지르며 죄를 회개했고 온 몸을 떨면서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터트렸다.²²

그 다음으로 옥외집회에서 회심하고 돌아왔던 회심자들은 각기 지역에서 신도회(Society)를 조직하여 모이게 하였다. 요한 웨슬리는 이와 같은 신도회를 방문하여 기르치고 돌보면서 신앙훈련을 시켜 나갔다.²³ 회개한 이에게 필요한 은총은 용서함을 받는 칭의의 은총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르침의 형태로 신도회를 발전하였다. 신도회의 목적은 옥외집회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극히 두려워하게 된 사람들을 복음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5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까지 그룹으로 형성되었으며 구원의 복음에 관한 기본교리가 전수되는 곳이었다.

신도회에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규칙이 있었고 각 규칙에 대한 세부 실천항목들이 있었다. 첫째, 조심하여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라. 둘째, 열심히 모든 선을 행하라. 셋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지키라. 이다. 이중에서 사회적 성화와 관련된 두 번째 규칙의 세부 항목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이웃의 몸을 위하여: 곤궁한 자를 먹이고, 입히고, 방문하라 (가난한 자, 병자, 갇힌 자를 방문), 사업에서 동료 메도티스트들을 고용하고 도우라.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사랑과 온유로 죄짓는 자들을 책망하라. 근면하고, 검소하며, 자기를 부정하라. 매일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라. 세상의 모든 꾀박을 극복하고 사랑과 자비를

²²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253.

²³ Ibid., 254.

행하라.²⁴ 이상의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경건생활과 함께 자비를 베푸는 사회적 구원의 활동을 강조하는 모임이었다.

신도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을 점검하고 순종의 신앙을 만들어 가는 더 작은 모임이 속회(Class meeting)이다. 이 속회는 현재 한국 교회에 자리잡은 소그룹 운동의 시초가 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감리교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모임으로 현재까지 이 전통은 잘 유지되어 한국의 거의 모든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모임을 갖고 있다. 10명 내외의 작은 그룹으로 모이는 속회는 마음 뜨거운 교제와 서로간에 돌봄의 사역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속회 안에도 사회적 성화를 위한 실천 활동들이 펼쳐졌는데 각 속회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보통 1주일에 1페니씩 혹은 여유 있는 사람은 2페니, 3페니씩 헌금을 내었다.²⁵ 그리고 모여진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방문하거나, 제소자 들을 방문하여 돕는 일에 사용되었다. 영국 감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속장 교본용 책을 보면 470여 가지의 영적 생활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각 속회는 1주일에 1페니 또는 그 이상의 헌금으로 신도회 사업에 참여하고 모든 선행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⁶

요한 웨슬리는 반회(Band)라는 모임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속회가 주로 개인의 간증과 권면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이루어진 성도의 교제와 교육 중심의 신앙훈련 모임이라면 반회(Band)는 보다 성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자리를 잡았다. 개인적 성화를 위하여 내면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죄의 상호 고백과 영혼에

²⁴ Ibid., 256.

²⁵ Ibid., 266.

²⁶ Ibid., 268.

대한 엄격한 감독을 통한 신앙고백적 영성 훈련 모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²⁷ 반회의 가장 두드러진 강조점은 사랑에 대한 강조였다. 사랑의 신앙은 사랑의 경험을 서로 나눔을 통하여 키워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랑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게 될 때 풍성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 여기서 나누다는 의미는 사랑을 받은 경험과 사랑을 주는 경험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실천이 필수적이었기에 반회의 모임은 서로 모여 교제와 격려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지만 외보적인 구체적인 선행과 어려운 자를 돌보는 돌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랑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요한 웨슬리가 만들었던 소그룹 모임은 참회자반(Penitents)과 선발신도회>Select society)가 있었고 이 모임 역시 사회참여와 구체적인 구제와 돌봄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회안에 만들어 놓은 작은 소그룹 모임들은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구원의 단계가 각각 다른 회중들을 진단하여 각 개인이 단계에 맞는 소그룹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었다. 단순히 현대 교회들처럼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분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돕는 은혜의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둘째 목적은 각 그룹의 활동 영역에는 사회적 성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성도는 개인의 성화와 사회적 성화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²⁷ Ibid. 269.

웨슬리는 각 소그룹을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도 사용하였지만, 사회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과 사회 전 영역에 하나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소그룹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제 V 장

기독교적 세계관 운동과 사회적 성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사회적 성화의 이론적 원리가 되는 내용들이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창조 - 타락 - 구속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 원리였음을 살펴 보았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모든 영역 가운데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영역 주권론의 이론적 배경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도 창조 - 타락 - 구속의 틀 안에서 문화명령을 받는 선한 청지기가 감당해야 할 실천적 과제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역주권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성화도 같은 목표와 시각을 가진 아래서부터 시작된 갱신운동이었음을 상고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과 원리가 얼마나 실천과 적용의 모습을 발전하여 나타났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탄탄한 논리적 구조를 가진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실천과 적용의 열매와 노력이 없다면 듣기 좋은 소리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번 5장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사회적 성화의 이론이 어떻게 운동에너지로 변환되어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 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흐름

양승훈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구호나 강연이 아니라 삶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의 학문 분야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¹ 기독교 세계관의 방향은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적용되며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 기독교적 지성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슴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화란에서 시작된 기독교 세계관은 영국과 미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4장에서 살펴본 아브라함 카이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카이퍼는 1898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있었던 스톤 강연(Stone Lecture)에서 ‘칼빈주의 강좌’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이 강연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두 개의 세계관이 필사의 전투에서 서로 투쟁하고 있다." ²라고 말하였다. 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대립하여 싸우고 있음을 표현한 말로 인간의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은총이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의 확립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학문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기독교화 후 자유대학을 설립하였고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여 마침내 수상까지 되었다. 카이퍼는 할 수 있는 한 화란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확립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다.

¹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17.

²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22.

카이퍼의 사상을 이어 받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도예베르트이다. 전통적인 칼빈주의 사상을 소위 우주법적 이념철학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사상가로 잘 알려진 도예베르트는 자신의 철학을 주저 없이 기독교 철학이라고 했다.³ 도예베르트는 자신의 입장이 독자적인 철학으로 신앙과 철학의 내적 접촉점을 증명하려 했다고 보았다.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와 도예베르트RK 초석을 놓는 기독교 세계관은 운동이 되어 급속도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화란의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의 칼빈대학이나 돌트대학교와 자유대학교 출신의 학자들이 캐나다 토론토에 설립한 기독교학문연구소 등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결과하라고 할 수 있다.⁵ 그 외에도 여러 대학과 연구 기관이 북미 대륙에 생겨났으며,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관 운동가로는 제임스 사이어, 리차드 미들튼, 브라이언 왈쉬, 알버트 윌터스 등이 있다.

한국으로 전파되어 자리를 잡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80년대 초반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기독교 학문연구소와 IVP와 같은 곳에서 발간된 책들을 통하여 소개되기 시작되어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소위 의식 있는 기독교 청년들의 교양 필수로 자리를 잡았다.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 혼란한 변혁의 시대였기에 복음주의 대학생들에게는 나름대로

³ 강영안,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65.

⁴ Ibid., 67.

⁵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2005), 191.

사회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였다.⁶ 기독교의 신앙이 단순히 내세 지향적 종교성에 머물지 않고 현실을 향해 발언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이론적 토대를 줄 수 있다고 믿었기에 많은 기독교 청년들과 지식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수용되었다.⁷ 이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창립되었고, ‘경제정의 실천연합’을 출범시켜 복음주의적 시민운동의 시초를 놓았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한국적 풍토에 적응하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첫째는 문화 분석과 문화관 논의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한국의 문화현상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던 시기였기에 새로운 문화를 검열하고 적용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는 기독교 교수들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분야에서 활동이다. 세속화된 학문의 영역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학문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묻고 답하며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던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학문분야에 적용하려 하였다. 셋째는 기윤실, 경신련,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천하려는 노력과 함께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평가

최근 10여년 사이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비판의 소리는 외부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관련된 내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소위 기독교

⁶ 양희송,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비판적 성찰과 역동적 혁신을 위하여,” *복음과 상황*, 2003, 1.

⁷ *Ibid.*, 2.

세계관 운동의 2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작금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바라보며 이론과 실천 사이에 나타난 큰 간극을 직시하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새로워짐을 외치고 있다.⁸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철회하거나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의 철저화를 통하여 발전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가지고 있는 비판의 요소 가운데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중에서 두 가지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내부에서부터 자각하며 말하는 공통된 내용이고, 나머지 한 가지를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려 한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개혁주의라는 범위 안에만 머물러 있다.⁹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개혁신학과 화란의 개혁교회의 신칼빈주의 신학을 모체로 하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개혁주의 세계관을 뛰어넘어 보다 넓은 범위를 통괄하는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의 상황은 기독교 세계관과 개혁주의 세계관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용적으로 개혁주의 세계관 인 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낳은 것이다. 기독교내 수많은 다른 신앙적이며 신학적인 전통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무시하고 개혁주의 세계관이 유일한 기독교의 대표선수인 것처럼 여김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넓은 용어를 협소화 시켰다. 그러기에 지금의 기독교 세계관을 정확히 말해 개혁주의 세계관 이라는 명칭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학적 사조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이름에 합당한

⁸ 최태연, “벼랑 끝에 선 기독교 세계관,” *복음과 상황*, 2006, 6.

⁹ 양희송,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비판적 성찰과 역동적 혁신을 위하여,” 2003, 9.

기독교적 세계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을 처음 꺼낸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 중에는 교단과 교파에 따라 감리교 세계관, 루터파 세계관, 성결교 세계관, 재세례파 세계관, 오순절 세계관 등 다양한 세계관이 있을 인정해야 한다.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현재 개혁주의 세계관 진영은 자신들의 설 자리를 빼앗긴다는 생각보다는 개혁주의 세계관이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되며 이식되는 개념을 갖게 될 때 모든 기독교 세계관과 함께 움직이는 연합적 운동으로 새로워질 것을 확신한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교회적 토대가 확고하지 못하였다.¹⁰

하나님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처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고 참된 주인으로 임재하시기를 바라지만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 있다면 교회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세워진 유일한 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많은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말들이 빈번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가장 강력하게 사용될 기관은 교회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과 교회가 연결되는 접착점이 너무 부족하기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교회적 토대가 확고하지 못하는 평가와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돕고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시도와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이제는 좀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일차적인 작업으로 다른 모든 일을 접어두더라도 교회

¹⁰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들과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 *기독교세계관 포럼*, 7.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성경적 원리로 다시 세운 후 교회를 통한 더 다양하고 풍성한 운동을 펼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교회가 사회 공동체 속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만 교회 밖에서 올바름을 외친다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결과물인 기독교 학문 연구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교회 개혁 연대 등 여러 기관들이 교회를 돕는 성격이 분명하고 많아질수록 기독교 세계관에 일치되는 일들이 여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기독교 세계관을 잉태시킨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셋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생활운동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생활운동으로 확대되어 전개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 동안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일부 영역에서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었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이 학문적 연구와 신학적 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처럼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돌아보건대 학문운동과 신학운동에서 시작하여 교육, 경제, 정치, 환경 분야까지는 영향력을 넓혔지만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생활운동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인은 밴쿠버에 위치한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2년 반의 학업의 길을 가는 동안 느낀 점이 이와 같은 부분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훌륭한 이론이 실천으로 흘러갈 때 머리로 이해한 것을 말과 입으로 실천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았다는 개인적인 소감이 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장애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실천을 했던 말인가?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방향이 책을 읽고

토론을 즐기거나 연구모임과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는가? 물론 이런 활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생활운동이 되려면 손에 잡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낮은 곳을 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적 학문을 하는 자리, 바른 정치를 하는 자리, 경제 정의를 실행하는 자리는 너무 높은 자리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토록 회년정신은 외치면서 회년을 살아내지는 못하였다. 예수님은 회년정신에 입각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회년의 정신을 외쳤으면 이제 예수님이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있는 곳을 가야 한다. 현재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머리가 커진 기형적인 구조로 펼쳐지고 있다.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열편 토론을 펼치던 교실에서 벗어나 더 넓은 범위로 옮겨질 때 진정한 생활운동이 펼쳐질 것이다.

사회적 성화 운동의 흐름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이론이 실천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회적 성화 운동은 이미 2장의 사회적 성화의 실제 부분에서 다루어졌다. 사회적 성화 운동은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제활동, 교육과 의료 활동, 노예폐지 활동, 교도소 활동, 여성 인권 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실천들로 이루어졌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소디스트 공동체 안에는 신도회, 속회, 반회 등 다양한 소그룹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요한 웨슬리는 1704년 ‘메소디스트의 특성’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자비의 삶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웃이든, 나그네이든, 친구이든, 적이든 간에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행해야 한다. 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자와 죄수를 방문하는 등의 육신을 돕는 일은 물론, 더 나아가 죽음의 잠에 깊이 잠든 다른 영혼들을 깨우고 이렇게 깨어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게 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며, 사랑과 선행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도록 돕는 영적인 일을 감당해야 한다.”¹¹ 라고 하였다.

또한, 요한 웨슬리는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나는 메소디스트라 불리는 이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다 사라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습만 남은 하나의 죽은 공동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처음부터 경험했던 성경적 진리와 그것을 실재화 시키는 영의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훈련이 전체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¹² 라고 하였다.

앞에서 요한 웨슬리가 주장한 메소디스트의 특성 가운데 자비의 일은 요한 웨슬리의 유언처럼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실제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졌다. 요한 웨슬리가 행하였던 사회적 성화 운동이 감리교 운동이라는 새로운 부흥 운동의

¹¹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논문집*, 한국웨슬리학회 역 (서울: 한국웨슬리학회, 2009), 55.

¹²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365.

물결과 함께 퍼져나갔던 것이다. 먼저는 영국 국교회에 독립하여 새로운 교단으로 거듭난 영국 감리교회가 그러했고, 미국의 감리교회가 그러했으며, 더 나아가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감리교회도 사회적 성화의 전통을 가지고 사회적 성화 운동을 펼쳐왔다.

한국 감리교회가 그 동안 펼친 사회적 성화 운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초기 감리교인들과 선교사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웠고 부흥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양적 증가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사회적 성화 운동의 관점에서 민족의 개화와 독립, 자주와 복지를 위한 교육사업, 의료사업, 문서운동, 농촌운동, 여성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 나갔다.

첫째, 한국의 감리교회는 농촌운동을 펼쳤다.

당시 교회의 75%가 농촌 교회였기에 농촌 문제는 곧 교회 문제로 직결되었다. 그래서 감리교는 고통당하는 한국 민중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농촌운동을 구체화 하였다. 한국 감리교회의 농촌운동은 주로 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1923년 기독교 청년회가 생겨나면서 농민들의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문맹퇴치, 농사개량, 협동정신 배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5년부터 시작된 기독교 여자 청년회(YWCA)의 농촌 운동도 김활란, 박인덕, 서은숙, 장정심, 홍에스더, 황에덕 등의 감리교인이 중심인물이 되었다.¹³

특히, 안산 샘골에서 활동하다 순직한 최용신은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홍천 보리울에 낙향하여 어린이들에게 한글과 우리 역사를 가르치면서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한 남궁억 전도사가 1922년 지은 시

¹³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1994), 567.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농촌 선교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도 애창되는 찬송이다.¹⁴

둘째, 한국의 감리교회는 산업 선교운동을 펼쳤다.

한국의 감리교회는 사회적 성화 운동을 초기에는 민족의 계몽과 개화를 통한 민족 구원 사상으로 전개되었고, 일제 시대에는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급속도로 산업화가 되면서 한국 사회에는 노동 근로자들의 소외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국가의 과도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과 함께 농촌에서 이농한 값싼 노동력의 공급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는 발전하였지만,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은 심각한 수준으로 빈곤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한국감리교회는 선교국 안에 ‘도시산업선교중앙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의 도시 업 현장을 파악하며 산업 노동자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¹⁵ 단순히 이러한 활동은 구제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인권회복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사회선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셋째, 한국의 감리교회는 평화 통일 운동을 펼쳤다.

1945년 직후 한반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인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때 한국감리교회는 체제와 이념을 떠나 민족 분단을 막고 민족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라는 입장을 가졌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감리교회 목사였던 김창준이다. 그는 이승만과 미국정부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기독교 민주동맹’을 결성하여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도를

¹⁴ Ibid., 602.

¹⁵ Ibid., 665.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¹⁶ 이 후 계속해서 감리교회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 한국 감리교회 백주년 기념을 맞아 발표한 선언문에 통일 의지를 담아 민주화 원칙과 7.4 남북 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적 대단결의 원칙이 충실히 수용되는 선언문을 만들었다. 1987년 ‘한반도 평화통일 협의회’와 1991년 ‘감리교평화 통일정책대회’와 1993년 ‘평화통일을 바라는 남북 인간 띠잇기 대회’와 1995년 ‘평화통일 북한선교를 위한 감리교정책협의회’ 등은 평화통일운동과 북한 지역의 선교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사회적 성화운동의 한 부분이었다.¹⁷ 현재 한국감리교회 안에는 서부연회가 조직되어 통일 후 효과적인 선교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준비를 오래 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넷째, 한국감리교회는 여성해방 운동을 펼쳤다.

한국감리교회는 초창기부터 미국감리교회의 여성선교부가 독립하여 선교사역을 진행하였기 에 여성들의 영향력이 막강하였다. 여성선교부는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해방 운동과 여성신권에 힘써 왔다. 여성에게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조혼제도의 반대와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 상대의 선택을 권고하였다.¹⁸ 195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는 전쟁이 끝난 후 야기된 윤락여성 문제가 심각하였다. 여성의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매매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를 위하여 감리교회에서는 매매춘 여성 신도를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부산 자매원 같은 보호시설을 건립하는 등 한국 감리교회의 여성선교회는

¹⁶ Ibid., 456.

¹⁷ 김홍수, “한국교회의 통일운동 역사에 대한 재검토,” *희년신학과 통일 희년운동*, 채수일 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421.

¹⁸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619.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도왔다.¹⁹ 한국 개신교 교단 중 가장 먼저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를 세웠으니 차별을 받던 여성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교단이다.

다섯째, 한국감리교회는 교육과 의료 운동을 펼쳤다.

한국에 들어온 초기의 감리교 선교사들은 의사와 교사의 신분으로 내한한 이들이 많았다. 이들을 통하여 교회와 함께 여러 학교와 병원들이 설립되었다.

감리교 최초의 의료선교사였던 스크랜턴을 통하여 시병원을 열어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하워드에 의해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병원이 세워졌고, 홀부인이 평양에 광해여원을, 미감리교 선교부에서 해주에 구세병원, 원주에 서미감병원, 개성에 남성병원, 완산에 구세병원 등을 세웠는데, 모두가 소외된 민중계층과 여성들을 돌보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²⁰ 현재, 명문 대학으로 발전한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 배재대학교 등 많은 교육 기간도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뿌리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성화 운동에 대한 평가

초기 감리교회의 사회적 성화 운동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농촌운동, 산업선교 운동, 평화 통일 운동, 여성해방 운동, 교육과 의료 운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들을 펼쳐왔음을 보았다.

현재 한국감리교회의 사회적 성화 운동은 과연 어떠한가? 과거의 많은 역할들을 지금도 잘 수행하며 요한 웨슬리가 시작한 감리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본인은 어려서부터 감리교의

¹⁹ Ibid., 549.

²⁰ Ibid., 555.

신앙배경을 가지고 자라났으며 한국 감리교회의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현재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한국감리교회가 사회적 성화 운동의 전통을 잃어버린 이유를 세 가지로 찾아보려 한다.

첫째, 교단적인 어려움이 사회적 성화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국 감리교회는 지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분열로 인하여 감리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과 내홍의 원인은 감리교 감독의 자리에 앉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심각한 분쟁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감리교회의 자랑은 중앙 집권적인 조직으로 일사분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강점이었다. 어느 교단보다도 단일성이 강한 강점이 사회적 성화 운동을 비롯한 감리교가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요소이다. 하지만 교단 내의 분열로 인하여 외부적인 사회참여와 운동들이 축소되었다. 한국 감리교회 이름으로 진행되던 많은 활동들이 멈추어져 있다. 물론 개체 교회 단위의 운동들은 계속되고 있지만 규모면에서 부족함이 보여진다. 감리교회는 그동안 연합하며 함께 모일 때 큰 힘을 발휘했는데 현재는 분열과 다툼으로 인하여 제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분열로 인하여 사회적 성화 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감리교인의 숫자도 감소한 추세이기에 교단적인 일치와 합의를 통하여 한국 감리교회가 이어온 사회적 성화 운동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리교회 내 잘못된 편견이 사회적 성화 운동의 확대를 막고 있다.

감리교 교단 내에는 두 가지 신학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하나는 자신들을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전통과 신학을 강조하는 보수적 그룹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소위 운동권이라 부르는 실천을 강조하는 진보적 그룹이 있다. 같은 감리교단 안에서 서로 추구하는 신학과 실천이 다른 두 그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사회적 성화 운동은 실천적 활동이 강한 진보적 그룹에서 많이 강조하며 진행되어 왔다. 이들은 민중 신학, 해방 신학, 여성 신학 등 자유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감리교 안에서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런 원인으로서는 미국의 감리교회가 한국의 전파될 당시 미국의 감리교 가운데 자유주의적 신학을 가진 남감리교회가 한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한국 감리교단 안에서 사회적 성화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운동권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게 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하여 사회적 성화 운동이 감리교 전체로 전개되지 못하고 일부 스스로 의식 있다고 말하는 부류의 목회자와 단체에서만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요한 웨슬리의 신학과 사회적 성화 운동은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된 운동이다. 다른 어떤 신학적 색깔이나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런데 현재 감리교단 안에서는 사회적 성화 운동에 자신의 신학적 색깔의 옷을 입혀 진행하고 있기에 전체로의 확대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현재 사회적 성화 운동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한국에 감리교회가 처음 들어오면서 왕성하게 일어났던 사회적 성화 운동은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이 잘 조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봉사활동이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구제와 박애 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사회활동은 정치적 활동, 경제적 활동, 사회 구조 변경 등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을 말한다.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사회전체로 퍼져갈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와

교단이 될 수 있다. 한국 감리교회의 초기에는 이 모든 기능이 잘 발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활동으로 민족의 독립, 민주화 운동, 경제 구조, 평화적 통일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사회를 변혁시키는 활동에 감리교회가 앞장을 섰었다. 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으로는 농촌과 낙후된 산업지대와 배움이 없는 약자들을 찾아가 구제하고 도와주고 가르치며 사람들의 작은 믿음에도 귀를 기울이는 교단이였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을 진단해 본다면 형식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사회의 잘못된 곳을 변혁하는 일을 뒤로한 채 감리교단 자체도 개혁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초라한 상태에 남아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명맥은 개 교회별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제 VI 장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사회적 성화를 접목한 교재 개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내용과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를 비교 분석한
분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타락-구속의 틀을 가지고 사회적 성화를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주장한 것이며 같은 관점을 가지고 펼쳐진 신학적
흐름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대립적인 신학적 논쟁에서 벗어나 서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사상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교류가 충분함을 인식할 수 있다.

둘째, 영역주권론과 사회적 성화가 목표로 한 범위는 동일하게 모든 삶의
영역 전체였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시대와 국가와 방법은 달랐지만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라는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 너 넓은 범위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과업을 위하여 아브라함 카이퍼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요한 웨슬리는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셋째, 현실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나 사회적 성화 운동이나 동일하게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과 사상이
있을지라도 실천과 적용이 약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약화된
이유와 사회적 성화 운동이 축소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서로의 강점과 약점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된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개혁주의 세계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른 교단과 교회의 세계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회적 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던 내용들을 배운다면 진정한 생활운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회적 성화 운동은 교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참여 운동을 복음주의적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통하여 배우며 사회적 성화 운동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을 도입한다면 초기 한국 감리교 안에서 보여 주었던 사회적 성화의 전통을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신학적 논쟁을 다루는 논문에서는 상대방의 오류와 약점을 찾아 공격함으로 논문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실천을 목표로 하는 논문에서는 철저한 자신에 대한 반성과 폭 넓은 수용이 오히려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 기독교 세계관과 사회적 성화는 먼저 스스로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나타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길을 갔다만 같은 관점을 가지고 달려왔던 서로의 이론과 방법과 실천을 수용하게 될 때 더욱 풍성한 운동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점점 한국교회가 약화되어 사회 속에서 목소리와 힘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진정한 사회 참여와 운동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과 사회적 성화가 힘을 합하여 다시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성화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교회공동체안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성화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접목한 교재로서 <일상생활영성> 제작하였고, 8주 과정으로

본인이 섬기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노스쇼어 아름다운교회에서 양육교재로 활용하였다.

이 교재를 통해 성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영성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확고히 가져야 하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실천하고 적용할 것을 교육하였다.

이제 본 논문의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영성> 교재를 소개함으로 마무리 하겠다.

첫째 주: 부활과 일상생활 Resurrection & Everyday Life

1. 일상 생활 영성이란?

A. 하루에 어떤 일을 하는 지 적어 보기 (1분).

B.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보기.

“아버지는 생선 시장에서 종일 일하시는 전임 사역자요, 선지자이자 체사장이며 왕이셨다.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동네에서 생선을 가장 싸게 팔아서도 아니고, 바쁜 금요일 오전에 계산 착오가 없어서도 아니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서도 아니다. 아버지와 점원 두 사람이 일하던 자그마한 가게가 물 좋은 생선을 알맞은 가격에 웃음 띤 얼굴로 판매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가게였기 때문만이 아니다. 생선을 사고 팔 때 느껴지는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의 분위기가 보는 사람들을 호뭇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C.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 것일까?

2. 일상생활영성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

A. 현대 교회의 상황

i. 미국 기독교의 유년화(The Juvenilization of American Christianity):

미국 기독교의 특징은 “도덕적, 치유적인 이신론 moralistic, therapeutic deism”

ii. 시카고 윌로우크릭 교회의 자기고백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in Chicago): Reveal: Where Are You?

2007년 leadership Summit 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자기 고백: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들 self-feeders’ 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면 매주 드러지는 예배 사이의 주중에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삶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영적 실천을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 iii. 한국교회의 상황: 1990년대 이후로 성장을 멈춘 한국 교회. 세가지 방향으로 나아감
 - 1. 선교
 - 2. 성령운동
 - 3. 제자훈련

- B. 신학적 문제들
 - i. 영지주의(Gnosticism)와 성속이원론 (sacred/secular dualism)
 - 1. 영적/종교적 영역과 물질적/비종교적 영역으로 분리.
 - 2. 영지주의에서 비롯.
 - 3. 그 결과 교회와 세상에 계급구조와 구분이 생김.

 - ii. 만인제사장 (priesthood of all believers)
 - 1. 베드로전서 2:9 절에 기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2. 만인 목사의 원리. Not a hierarchy, not a democracy, but a pneumatocracy!

- C. 종합: 오늘날의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단초로서 일상생활영성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 3. 부활: 참된 인간됨을 찾아가는 길
 - A. 창조:
 - i.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 1. “보시기에 좋았다. It looks good!”
 - 2. 인간의 창조 (1장과 2장 두 가지의 측면)
 - A.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 B.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C. 인간의 소명이란 청지기로서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

B. 타락.

- i. 죄의 결과로서 죽음.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남.
- ii. 히 2: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C. 구속

- i. 구속을 되돌리는 것. Re-demption; Re-storation
- ii. 인간의 부활과 세상의 구속
- iii.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 iv.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성

D. 새로운 세상의 시작: 성령

- i. 요 20: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 ii. 골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having been buried with him in baptism and raised with him through your faith in the power of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 iii. 시편 116:9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E.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 i. 죽음을 극복한 삶
- ii.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 iii. 세상의 육체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

둘째 주: 성경 속에 나타난 일상 생활 Everyday life in the biblical Story

1.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이다 The glory of God is a living man.” – St. Irenaeus

2. 다윗: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 가장 거룩한 이야기

시편 18:29 “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째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A.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 (삼상 16:1-13)

- i. 삼상 16:11 “아직 막내(haqqaton)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 ii. 가장 하찮은 자까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임을 보여줌.
출 19:5-6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 iii.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 iv.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며, 모든 성도는 선교사다!

B. 일터로 나간 다윗 (16:14-23)

- i. 악령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울
삼상 16:14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 ii. 일이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일의 의미는?
- iii. 창조주 하나님은 명품을 만드시는 장인.
- iv.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일하는 인간.
- v. 다윗의 첫 번째 직업: 악령에 들려 고통받는 왕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일.

- vi. 모든 성도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행위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행위이다.

C. 하나님께 사로잡힌 비전으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 (삼상 17 장)

- i. 삼상 17:4-7, 11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5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6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 그 창 자루는 베틀 채 같고 창 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11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 ii.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
삼상 17:26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 iii.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삼상 17:34-37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 iv.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한다.
- v. 인간의 참된 세가지 기초.
1.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 받은 존재
 2.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3.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

D. 하나님의 양육 장소인 광야로 들어간 다윗 (삼상 23-24 장)

- i. 엔게디 광야로 도망친 다윗.
삼상 24:11-12 “11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겹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 ii.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함.
 - iii. **모든 성도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
- E. 시글락에서 형성한 다윗 공동체 (삼상 27 장)
- i. 미친 척 하여 생명을 건진 다윗
삼상 21:12-14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쪽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4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 ii. 다윗의 공동체를 구성한 사람들
삼상 22:1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 iii.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간다.**
- F. 하나님의 성품, 긍휼을 보여준 다윗 (삼상 30 장)
- i. 시글락에서 벌어진 사건과 군사들의 분노
삼상 30:6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 ii. 병든 병사를 향한 긍휼

전도서 11:1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하는 것.

iii. 남은자를 향한 긍휼

30:23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iv.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간다. 긍휼 compassion(함께 + 고통)을 나누는 것.

셋째주: 일, 소명 & 은퇴 Work, Calling & Retirement I

1. 서론: 우리는 인간인가?

- A. 기억 상실증
- B. 야생에서 길러진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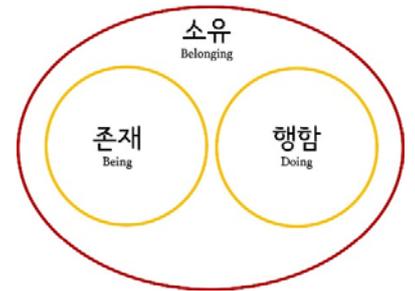
2. 인간으로의 부르심: 소명

A. 소명이란 Vocation?

B. 소명: 세가지 차원의 부르심

i. 소유 belonging: 하나님의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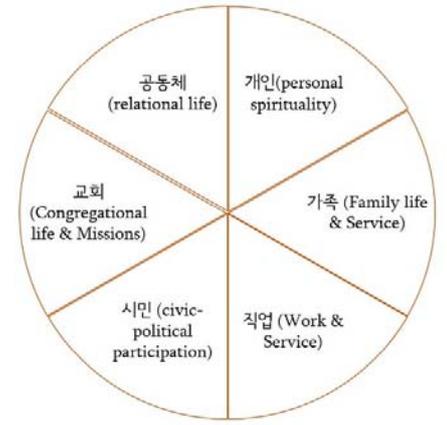
고린도전서 1: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God, who has called you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is faithful.”



마가복음 3:13-14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ii. 존재 being: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열매)

iii. 행함 doing: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은사)



3. 인간을 위한 부르심: 일

1. 일에 대한 일반적 이해

A. 일은 제한된, 다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지만 그 자체는 무의미하다.

B. 전도서 2:17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2. 일하시는 하나님과 창조

A. 명품을 만드시는 장인

창세기 2:2-3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work)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work)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work)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B. 하나님의 일

- i. 창조하시는 일:
- ii. 유지하시는 일:
- iii. 구속하시는 일:
- iv. 완성하시는 일:

우리의 직업 중에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할까?

C.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쁨(Joy):

- i. 욥기 38-41 장.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시간의 틀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침에게 명령해 보았느냐? 누가 날씨의 주인이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이 우주를 운용하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 낼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수 있겠느냐?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는 자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아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 ii. 일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득하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만들어 졌다!” (일의 신학, 152)
- iii.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 21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joy!'

D. 사랑을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 i. 사랑속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Perichoresis)

- ii. 우리를 관계 속에서 지으시고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심
- 3. 하나님의 향상을 닮아가는 인간의 일
 - A.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
 - i. 에덴동산: 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확장하는 일
 - ii. 일과 예배는 동일한 것
창세기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 A. Work, *Abad*-to work and to serve-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 B. To take care of it, *Shemar*-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돌보는 일.
 - iii. 일과 영적 성장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있다면 좋을까?)
 - A. 요셉이야기.
창세기 45:7-8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 B. 공동체를 세우라는 부르심
 - i. 무슨 일을 하든지 공동체 안에서 일하도록 지음 받음
 - ii.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활동
 - 1. 일을 통해 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성장함
 - 2. “아침식사를 하는 동안에 당신은 지구의 반 이상의 사람들을 의존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Martin Luther King Jr.
 - iii. Don Flow의 이야기:
 - C. 창조에 동참하라는 부르심
 - i. 인간의 소명이란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

1. 소명이란, 독일어 aufgabe 라는 말은 선물 gabe 를 열어 펼친다는 의미.
 2. 이 특별한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퍼져나가도록 계획하심.
- ii. 청지기의 영역은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일이 성직이다!)
 - iii. 에토스 워터
 - iv.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 은행.

넷째 주: 일, 소명 & 은퇴 Work, Calling & Retirement II

1. 추락하는 일에는 날개가 없다 (타락과 일).

A. 타락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 i. 동산 한가운데 있던 선악과: 선과 악을 알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나무.
- ii. 인격적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온전한 성숙에 이를 수 있음

B. 타락의 본질

창 3:5-6 “5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지라”

- i. “하나님과 같이 되어”
- ii.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C. 타락의 결과

창 3:16-19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 i. 임신하는 고통과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음

- ii. 관계의 깨어짐: “다스릴지니라”
- iii.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 iv.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 하게 됨 (롬 8:20)

D. 타락한 일의 현장

- i.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 하는 일
 - 1. “회사는 한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능한 한 이익을 최대한 남기는 것이다.” (Richard G. Lipsey)
 - 2. Milton Friedman & Bill Gates and Warrant Buffet’ s 창의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
 - 3. 포드사의 자동차 핀토.
 - ii. 섬김과 돌봄이 아닌 돈벌이와 경쟁 상대로서의 관계.
 - 1. 2000 년대 니카라과의 노동착취 공장
 - iii. 인간의 돈벌이를 위해 파괴되는 자연환경
 - 1. 1999 년 인도에 세워진 코카콜라 공장
 - 2. 아마존의 자연
2. 하늘의 선을 이루어가는 땅의 일에 참여하라 (구속과 회복)
- A. 구원을 다시 생각하기
 - i.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오해
 - 1. 개념적 혼란: 천국=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 2. “죽으면 천국 간다”? 부활로 가는 두 단계: 낙원/거할 곳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 3. 문화적 혼란:

- A. 단테의 그림을 통해 나타난 중세의 세계관
 - B. 다양한 주변 종교와 문화의 영향
- ii. 기독교가 말하는 놀라운 희망
- 1.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 A. 십자가: 모든 죄에 대한 대속과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 (막 10:45 & 요한계시록 12 장)
 - B. 부활: 새 창조의 첫 열매. 인간의 회복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고전 15:20-22).
 - C.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신 주 (막 16:19)
 - 2.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Tom Wright)
- B. 마침내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 i.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 ii. 계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 iii.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
- C.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삶은?
- i.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누리는 삶: 계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 ii. 어린양의 혼인 잔치와 같은 삶: 계 19: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 iii. 일과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삶: 계 22:3-5 “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D. 천국에 흔적을 남기는 일

- i. “예수님의 부활과 온 세상의 회복, 그 중간 단계에 인간의 회복이 있다” (Tom Wright)
- ii. 롬 8:19-22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 iii.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하는 일은 천국에 흔적을 남기는 일.
 1. 계 22:24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 이사야 60 장의 성취
이사야 60 “3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5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움이라...9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 iv. 천국에 흔적을 남기는 일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
 - 1. 성당을 건축하는 일
 - 2. 바닷가에서 아빠와 아이가 함께 모래성 만들기

다섯째주: 성, 결혼 & 우정 Sexuality & Marriage & friendship

1. 일상을 묵상하기

A. 식사

- i. “먹고사니즘” ?
- ii. 인간은 생명을 먹고 사는 동물
- iii. 식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통로
- iv.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잔치
이사야 25:6-8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 v.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식탁의 영성
로마서 14: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 vi. 이웃을 초청하는 식탁의 영성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2. 호세아에 나타난 언약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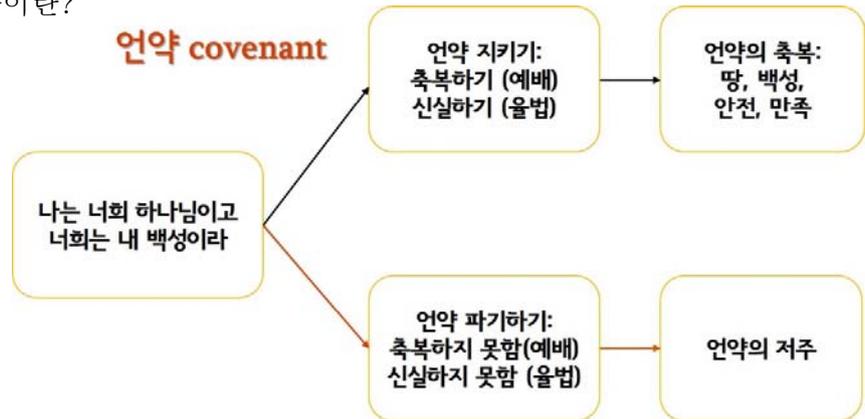
A. 배경

- i.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이스라엘의 역사(758 년-722 년 활동)

B. 내용

- i. 호세아 1:2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 ii. 호세아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 iii. 호세아 2:14, 16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구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부드럽게) 위로하고…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 iv. 호세아 3:1-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는 열다섯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 v. 호세아서는 언약의 참된 의미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첫번째 책
 - 1. 언약이란?



- 2. 언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Heseed
 - A. 헤세드는 충성과 사랑의 결합된 것
- 3. 이렇게 호세아에 나타난 언약과 헤세드의 사랑. 이 둘이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자 모델

3. 언약에 근거한 성

A. 오늘의 현실

- i.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믿음을 거의 상실한 반면, 성 sex 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고해짐.
 - 1. 피임법의 발달로 출산없는 성을 추구
 - 2. 결혼의 의무가 없는 동거를 추구
 - 3. 성은 그 자체로 놀이가 됨, 과거의 문화와 종교적 의무로부터 해방.
 - 4. 파트너가 없는 포르노를 탐닉

B. 성을 언약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기

- i. 성, 우리가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존재
 - 1. 창세기 2 장 18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 창세기 2:24-25 “아담이 이르되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 ii. 성, 결혼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존재
- iii. 성,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
- iv. 성,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 존재

4. 언약에 근거한 결혼

- A. 언약 속의 결혼: 결혼 서약 “나는 당신을 영원히 합법적으로 나의 아내/남편으로 맞이하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아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할것이니 이것이 나의 엄숙한 서약입니다.”

- i. 나는 당신을...로 맞이하여: 언약의 배타성.
- ii. 나의 아내/남편으로: 언약의 관계적 본질.
창세기 2:25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 iii.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아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언약의 해체 불가성.
- iv.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 언약의 신성함
마 19:5-6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 B. 언약 속의 결혼: 영적 성장을 위한 통로

- i. 결혼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 ii. 부부의 사랑은 우리의 소명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으면 안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5:15-21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5. 언약에 근거한 우정

- A. 베드로후서 1:4-8”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 B.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
- i.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제: 형제우애를 나누는 코이노니아
 1. 성찬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 A.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눔
 - B. 재정적인 필요를 나눔
 - C. 고난을 나눔
 - D. 서로의 몸을 세우기 위한 헌신과 돌봄
 - E.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할수 없다. 자유는 육체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자유다” 고든피.
 - ii. 세상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
요한복음 15:13-14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섯째주: 우상, 돈, 소비주의 Idols, Money & Consumerism

1. 일상을 목상하기: 배설

- A. 신명기 23:12-14 “12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13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14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삶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B. 마가복음 7:15-16 “15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외면적 더러움이 아닌 내면적 더러움을 생각해야 한다.
- C. 빌립보서 3:8-9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 idol factory

A. 우상이란 무엇일까?

- i.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사로잡는 것, 오직 하나님 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대신 얻고자 하는 것, 즉, 우상은 그것없이 살수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팀 켈러.
1.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2.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3. 기도했는데도 자신의 뜻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
 4.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 ii.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수 있다.
1. 에스겔 14:3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2. 출애굽기 20:3-4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iii. 우상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중이다. 인간의 본성에 관해 흥미로운 것은 인간 성품의 유연성(plasticity), 외부 영향에 의해 변모하는 성향이다.” Kathryn Tanner

2.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시편 115편 4-8 절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느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3. 소비주의: 나는 소비함으로 존재한다.

A. 소비주의란 “소비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는 트렌드”

- i. I shop therefore i am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 ii. Homo Consumericus 소비하는 동물.

B. 소비주의의 특징들

- i. 소비는 대부분 조작된 광고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ii. 소비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입증하는 수단이 된다.
- iii. 소비는 종교적인 만족을 얻는 수단이 된다.

C. 소비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삶

- i.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한심한 피조물인지, 무한한 기쁨을 주겠노라는 제안을 듣고서도 그저 술이나 섹스나 야망 같은 것들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놀려고 하는 어리석은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어서

뒷골목이나 배회하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이다.” CS. Lewis, “The Weight of Glory” in Theology (1941)

- ii. 우리의 정체성은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달려 있다.

4. 돈: 삶의 모든 방향은 돈인가 예수님인가?

A. 돈

- i. 은행에 돈이 쌓여갈때 기분이 어떤가? 생활비가 은행에 충분하지 않다면?
- ii. 돈이 많아서 두려운 적이 있는가? 너무 적어서 두려운 적이 있는가?
- iii. 돈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가? 멀어지게 만드는가?
- iv. 주는 것을 좋아하는가 받는 것을 좋아하는가?
- v.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영성을 보여준다?
- vi.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돈을 향한 탐욕과 욕망이 내 영혼과 가족과 사람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B. 돈의 전지전능한 힘

C. 돈에 대해 애매모호한 성경의 가르침

- i. 돈은 하나님의 축복? 브라함과, 욥과 솔로몬
- ii. 돈은 일만약의 뿌리?

D.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부자 청년과 삭개오

- i. 부자청년과 예수님.

[막]10:21-22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 ii. 삭개오와 예수님. 돈에 대한 가장 분명한 태도를 보여준 이야기.

1. 누가복음 19:8-9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2. 삭개오의 반응은 두가지
 - A.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부를 쌓는 지혜.
 - B. 빼앗을 것은 네배로 갚음. 하나님의 정의를 깨달음.

E. 자족하는 삶과 나누는 삶

- i. 디모데전서 6:6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주: 바쁨, 안식 및 나이들 busyness, Sabbath & aging

1. 일상을 묵상하기: 멍때리기

i. 멍때린다는 정의: “멍하니 absent-mindedly or as if stunned”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ii. 권태 Boredom 혹은 무료함으로 인한 멍때림

1. 찰리채플린의 모던타임즈. 반복되는, 생각없고, 의미없는 일들의 반복이 심한 피로감을 가져옴. 우리가 하는 일에서 만족감과 의미를 찾지 못할때,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은 멍때림으로 나타남.

2. 엔테테인먼트의 문화. 산업사회로부터 오는 피로감을 해결하기 위해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 닐포스트먼 “죽기까지 즐기기 Amusing ourselves to death”

iii. 내면의 소리를 듣는 침묵

3. 멍때리는 시간은 우리 내면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시간.
시편 119:28 “나의 영혼이 슬픔(권태)로 지쳐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 My soul is weary with sorrow(boredom); strengthen me according to your word”

4.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더 많은 침묵.

ii. 멍때리는 시간을 기쁨으로 채우기

시편 16:11 (의역) ”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 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5. 바쁨: 현대인의 특징

A. 한병철의 “피로사회” : 자기 학대와 자기 착취의 사회. 우리는 바쁘다.

B. 우리가 바쁜 이유들

i. 다양한 종류의 자존심

ii. 지나친 책임감

iii. 우선순위가 없는 삶

- iv. 자녀양육에 대한 지나친 염려
- v. 디지털 기기의 지나친 사용
- vi. 충분한 휴식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
- vii. 좋은 바쁨과 나쁜 바쁨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

C. 바쁨이 초래하는 영적인 위험들

- i. 바쁨은 기쁨을 빼앗아감
- ii. 바쁨은 영혼의 문제를 감추어버림: 바쁨과 영적인 게으름
 “바쁨은 중독성 약물과 같다. 바쁨은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염려들을 억제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반추하는 내면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어떻게 보이는지에만 관심을 갖는 외면적인 사람들이 된다.” -James M. Houston

“바쁘다는 말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의 증상이다. 신실함이 아니라 결함이다. 이 단어를 목회자에게 사용한다면 마치 음행하는 아내 혹은 횡령하는 은행원과 같이 들린다. 이것은 끔찍한 스캔들이며 매우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다.” - Eugene Peterson

D.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 i. 누가복음 10:38-42 “38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41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ii. 마르다의 행동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
 1.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심.
 2.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심.

3. 예수님의 발앞에 앉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E. 바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

i. 마음을 점검하기:

1. 시편 127 편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2. 골로새서 4:5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redeeming the time.”

ii. 디지털 기기의 금식을 습관화하기:

1. 인터넷
2. 스마트폰
3. 텔레비전을 끄기

iii. 안식일을 지키기

6. 안식일을 지키기

A. 안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들

- i. “안식일은 휴식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씩 주시는 법정 공휴일이며 만왕의 탄식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 골을 내게 되었다는 것, 안식일에 대해 우리 짐을 덜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아니라 우리 어깨에 올려놓으신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것을 빼앗아 가는 날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기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Mark Buchanan
- ii. 미국 뇌신경과학자. 마커스 레이클(Marcus Raichle)이 말하는 “뇌의 디폴트 모드 (the brain's default mode)”

B.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안식일의 참된 의미

- i. 5:1-9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 ii.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 iii. 38년된 병자는 스스로 구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인간을 대표함.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이 땅에 참된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

C.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명령

- i. 신명기 5:8-11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D. 안식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백성의 모습

- i. 하나님 되기를 멈춤:
 - 1. “만약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
 - 2. 일, 생산성을 멈춤

3. 걱정과 염려를 멈춤

4. 하나님 되기를 멈춤

ii. 하나님의 안식을 세상에 증언함

1.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전파하는 것.
2. 온전한 안식의 사회적 기초: 회년

E.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 i. 일주일에 하루를 생업에서 중단하기
- ii. 적당한 휴식을 취하기
- iii. 육체적 영적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 iv.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 v.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기

7. 나이들의 의미

A. 고령화 시대

- i. 2009년 UN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World Population Ageing) 인구 고령화가 모든 나라의 삶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ii. 호모 헉드레드(Homo Hundred) 2020-2025에는 100세 시대가 도래.
- iii. 단순히 수명 연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완전한 쉬프트가 이루어지는 상황.

B. 일반적인 이해

- i. 고령화는 사회적인 문제. 사회가 젊어져야 할 천문학적 액수의 경제적 부담.
- ii. 은퇴 이후의 애매한 삶.

C. 성경에서 말하는 나이들

- i. 나이들은 축복의 상징
 1. 잠언 16:31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

2. 레위기 19:32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Rise in the presence of the aged, show respect for the elderly and revere your God. I am the LORD.”

ii. 나이들은 한계의 상징

1. 전도서 12:1, 5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끈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iii. 나이들은 하나님의 소명.

1. 아브라함은 75 세, 모세는 80 세, 여호수아는 80 세, 안나는 84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2. 고린도전서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iv. 나이들의 비전

1. 거룩한 삶의 모델

- A. 이야기: 한 사람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산 증인.

B. 성품

고린도후서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시편 92:12-14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2.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

A. 젊은 세대를 돌보는 멘토링

B. 교회의 연합, 평화를 이루는 리더십

C. 나눔과 돌봄의 리더십

여덟째주: 일상을 위한 습관 Habits for everyday life

1. 일상을 묵상하기: 걷기와 산책
 - A. 걷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건강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정신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걷기는 시선을 그 본래의 조건에서 해방시켜 공간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으로 난 길을 찾아가게 한다. 걷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과 다 손잡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구불구불한 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길을 더듬어간다." 다비드 르 브르통, "걷기 예찬"
 - B. 걷는 것은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 i. 세계적인 도보여행가 베르나르 올리비에(Bernard Ollivier.75) 이야기
 - C. 가인에게 주신 벌. 창세기 4:12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a restless wanderer on the earth"
 - D.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임을 묵상하기.
2.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 A.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
 - i. 요한복음 14:21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 ii.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 iii. 요한복음 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 B. 먼저 인격적 관계란? 동물처럼, 기계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 C.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깊어진다. 야고보서 4:8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D.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영원토록 쌓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분으로 인해 더 많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웨인 그루뎀.

3.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A. 말씀 묵상과 기도

- i. 계시록 10:9-10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먹는 책.

- ii. “거룩한 읽기는 언제나 기도가 수반되어야 하고, 거기에 밀접히 결합되어야 한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로부터 정화되고 읽기로부터 교육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주 기도하고 자주 읽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이고, 우리가 읽을 때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읽기와 기도와 묵상에 나아가야 한다. 읽기를 하면서 모르는 바를 배우게 되며,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운바를 기억하게 되며, 기도으로써, 우리가 기억한 바를 살게 된다. 성서읽기는 우리에게 이중의 선물을 제공한다. 즉 영혼의 이해력을 보다 더 예민하게 해주고, 인간을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떼어낸 후, 그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도한다.”

- iii. 렉치오 디비나 Lectio Divina: 구약에서부터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 수도원 전통(특히 베네딕트 수도원)을 거쳐 약 1500 여년간 지속되어온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일반적인 훈련.
 1. 내적 침묵기도: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린다.
 2. 들음: 눈으로 성경 본문을 소리 내어 또는 마음 속으로 천천히 읽는다(*lectio*). 이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으면 독서를 멈추고, 그것을 반복해서 되새김하면서 그 의미와 하나님께 그 구절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묵상한다(*meditation*).
 3. 응답: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응답(기도)한다. 자연적으로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도-감사, 통회, 중재, 탄원, 찬양, 청원-을 드린다(*oratio*)
 4. 머물름: 하나님의 현존 안에 고요히 머물며 기쁨, 평화, 만족을 누린다(*contemplation*)
 5. 실천: 하루를 살면서 받은 말씀을 되뇌이면서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킨다(*praxio*).

B.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기

- i. 마가복음 9:7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 ii.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크게 세가지:
 - 1.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 2.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설교, 대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을 통해서)
 - 3. 내적인 감정의 움직임을 통해서
 - A. 개인적인 차원에서:
 - i. 마음의 움직임을 구별하기
 - 1. 두 가지 마음의 움직임
 - A. 황폐한 마음: 분노, 두려움, 낙심, 무관심, 미지근함, 불행 등과 같은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어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상태.
 - B. 위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의 상태.
 - 2. 황폐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이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실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B.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영적지도)

C. 피정

- i. 시편 27:14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0:5-6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 ii. “고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하루하루 영위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활동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세상에 부합하는 감정과 생각과 활동의 양상으로 우리를 정형화시킨다. 오직 고독만이 하나님의 질서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각인된 태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달라스 윌라드

D. 섬김과 손대접

- i. 마태복음 11:28-29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야고보서 4:6 “하나님이…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 ii.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사례들, 요셉, 모세, 바울은 겸손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한 이유는? 신명기 8:3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주리게 하시며”
- iii. **탕자의 비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유대인들을 향한 교만함을 질타하시는 말씀.
- iv. 겸손한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임을 강조하심
 1. 천국에서 가장 큰자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마 18:4)
 2.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막 9:35)
 3. 그들 중 가장 큰자는 그들중 가장 작은 자다 (눅 9:48)
- v.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훈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와 영적 성장의 과정이 됨.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을 훈련해야 한다!
- vi. 섬기는 삶을 위한 질문들
 1.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기꺼이 허드렛일을 하는가?
 2. 사람들이 무시하고, 멀리하고, 깔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찾고 있는가?
 3. 동료의 성공에 기뻐하는가?
 4.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가?
 5. 모든 사람을 존중과 예의로 대하는가?
 6. 다른 사람을 화나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
 7.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가? 동료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8. 다른 사람의 실수를 부풀리거나 약점을 들춰 냄으로써 그들을 깎아내리지는 않는가?
- vii. 섬김을 위한 훈련.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정하고 돌보라.

1.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섬김은 개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을 빛진자로 만들고 가장 미묘하고도 파괴적인 조작으로 끝나고 만다.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세운다. 그러한 섬김은 조용히 허세를 부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고 다닌다.” 리처드 포스터
2. 마태복음 5: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참고 문헌

번역서적

- 랑홀레이. *복음이나 혁명이나*. 이동영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4.
- 마르쿠바르트, 존. *웨슬리의 사회윤리*. 조경철 역. 대전: 보문출판사, 1992.
- 마이클 호튼,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
- 매닥스, 랜디. *웨슬리 신학 다시 보기*. 이후정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2.
- 스토트, 존.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정옥배 역. 서울: IVP, 2010.
- 아우틀러, C. 알버트. *웨슬리 영성안에 복음주의와 신학*. 전병희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 윌너, 랄프. *요한 웨슬리*. 강병훈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2004.
- 윌터스, 알버트. *창조 타락 구속*. 양성만 역. 서울: IVP, 2007.
- 웨슬리, 요한. *새로운 탄생*. 이계준 역. 서울: KMC, 2009.
- 웨슬리, 요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계준 역. 서울: KMC, 2009.
- 웨슬리, 요한. *존 웨슬리 논문집*. 한국웨슬리학회 역. 서울: 한국웨슬리학회, 2009.
- 카이퍼, 아브라함. *기독교와 사회문제*.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 카이퍼, 아브라함.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서문강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2.
- 카이퍼, 아브라함.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 캡, B. 존. *은총과 책임 심광섭*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7.

한국어서적

- 강영안.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5.
- 김동환. *목사 웨슬리에게 목회를 묻다*. 서울: KMC, 2014.
-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서울: 도서출판진흥, 2000.
- 김홍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서울: 성서연구소, 1996.
- 김홍기. *존 웨슬리의 성화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8.
- 김홍수. *희년신학과 통일 희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송홍국. *웨슬리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2005.
-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1999.
-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1994.
- 이형기. *세계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이후정. *성화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서울: 킹덤박스, 2010.
-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논문, 잡지

- 김영선. “존 웨슬리의 사회복지 목회” 19, *존 웨슬리의 신학과 개혁신학*, 2006, 81-101
- 김현수. “아브라함 카이퍼 그 정치활동과 신학사상 II” 1994년 4월호, *복음과 상황*, 1994, 87.
- 박창훈. “존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에 대한 재고찰” 30권 0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11, 121-149.
-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요구들과 기독교 세계관의 요구” 제8권 2호, *신앙과 학문*, 2003, 59-81.
- 양희송.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비판적 성찰과 역동적 혁신을 위하여” 제8권 2호, *신앙과 학문*, 2003, 36-58.
- 최태연. “벼랑 끝에 선 기독교 세계관,” 제8권 2호, *신앙과 학문*, 2003, 83-100.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Joseph Jung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Sep.26, 1976

Parent's Names: Yeon Sik Jung and Hong Yeol Jang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Pungsaeng High School Joungwon-gu, Sungnam-si, South Korea	Diploma	Feb. 10, 1995
Collegiate: Mokwon University Yousung-gu , Daejeon-si, South Korea	B.A.	Feb. 24, 2002
Graduat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okwon University Yousung-gu , Daejeon-si, South Korea	Th. M.	Feb. 24, 2004
Graduate: Trinity Western University ACTS Seminary Langley BC, CANADA	M.A.	May 12. 2014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oseph Jung

Name typed

May 6, 2017

Date